

“설교 잘하려 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게 하십시오”

본지 주최, 김귀보 목사 강사
토랜스제일장로교회서 개최

김귀보 목사(큰나무교회)가 지난 9일, 본사 주최로 열린 내러티브 설교 세미나에서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교회’를 주제로 실제 사례를 나눴다. 20년간 이민 목회의 현장에서 겪은 치열한 사역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설교를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성경 본문이 말하게 하라”고 강조했다. 행사는 토랜스제일장로교회(고창현 목사)에서 열렸다.

김 목사는 미국에 처음 도착해 방문했던 한 교회를 회상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교회는 세 파로 분열되어 있었고, 집회 후에도 불안하고 냉랭한 분위기 속에 빨리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불과 10초 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자신에게 맡기실 것이라는 강한 예감이 들었다.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고, 이후 그 교회를 담임해 20년 목회를 이어오고 있다.

그 교회는 한때 공금 횡령 논란으로 전임 목회자를 떠나보낸 아픈 과거가 있었다. 현금이 주당 300 달러 밖에 나오지 않던 교회 재정으로 목회자가 집과 차를 샀다는 말도 안되



기독일보에서는 6월 9일-10일(월,화) 김귀보 목사(달라스 큰나무교회)를 초청해 토랜스제일장로교회에서 말씀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 ‘내러티브 설교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독일보

는 소문을 믿었던 성도들. 그런 상황에서 목회를 시작해, 무려 네 번이나 교회 이전을 거치며 지금은 달라스 중심가에 정착했다. 현재는 14만 스웨어피트의 새로운 교회 건물로 이전을 앞두고 있으며, 성도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말씀 중심의 훈련이 성도들의 믿음을 그렇게 단단하게 세웠기 때문이다.

김 목사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극한의 자리’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민교회를 하다가 정상인을 만나면 반갑다”라는 한 선배 목사의 말이 2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절실히 이해된다고 말했다.

“설교를 준비하고 전한 다음, 종종

목사는 실제로 자신이 죽겠다고 느꼈던 설교 후, 한 반주자가 찾아와 “그 설교가 인생을 바꾸었다”고 고백했던 일화를 나눴다. 그는 “설교자는 설교에 실패했다고 느껴도, 성도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며, “설교자와 성도의 생각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많은 목회자들이 예화

나 세상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노력하지만, 성도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다. 성도들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한다. 그러나 많은 설교자들은 성경을 지루한 책으로 여기고, 오히려 재밌는 이야기로 메시지를 대신하려 한다”며, “이럴수록 성도들은 교회를 떠난다”고 말했다. 그는 내러티브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예로 들었다. “유대인이 가장 듣기 싫은 이름, ‘사마리아인’을 주인공으로 나온다. 듣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열려 있고 방심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진리가 마음을 꿰뚫는다. 이게 내러티브 설교의 힘”이라고 말했다.

또한, 설교 전달 방식의 오류도 지적했다. “설교자가 열정적으로 소리치면 성도는 집중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청중은 오히려 ‘왜 소리를 지르니?’ 생각한다. 설교자는 권위자가 아닌, 안내자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성도를 이끄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이라고 했다. 내러티브 설교는 단순한 감정 호소나 예화 나열이 아니다. 그는 두 가지 성경 해석 방식을 제시했다.

토마스 맹 기자 → 3면에서 계속

美 남침례회, 동성혼·낙태약·음란물 금지 촉구 결의안 통과

달라스서, SBC 연례 총회 개최

남침례교 협의회는 동성혼, 음란물, 임신 중절약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켰다. 6월 8일부터 11일까지 텍사스 주 달라스에서 열린 SBC 연례 회의에서 수천 명의 대표가 성 윤리와 낙태에 관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세 가지 결의안을 구두 투표로 승인했다.

‘성별, 결혼 및 가족에 대한 신의 설계를 통해 도덕적 명확성을 회복

하는 것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결의안 중 하나는 동성혼에 대한 주 정부의 제한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2015년 미국 대법원의 오버게렐 대 헤이스 판결을 뒤집을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혼을 확립하고,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현실을 인정하고, 성착취



2025 SBC 연례총회. © Baptist Press

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 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포함한 엄격한 집행 메커니즘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적극적으로 도울 정책을 마련하고, 운동 경기에서 안전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법률”을 지지한다.

‘음란물 금지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결의안은 의원들에게 “모든 매체에서 음란물 콘텐츠의 제작, 출판, 호스팅 및 배포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전국적으로 음란물을 근절하기 위한 궁극적인 노력으로 연령 확인 및 민사상 책임을 포함한 엄격한 집행 메커니즘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신미엘 기자 → 4면에서 계속

미주기독일보



CTV

TV기독일보 주간뉴스



태양광, 솔라!!

-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 연방ITC: 30% 이상
- 쏠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 전기로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율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7 Day 24hours (213)400-6363

하는 것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결의안 중 하나는 동성혼에 대한 주 정부의 제한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2015년 미국 대법원의 오버게렐 대 헤이스 판결을 뒤집을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혼을 확립하고,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현실을 인정하고, 성착취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면이 되길 희망합니다!

www.marhaw.com
상법/부동산법 ■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법·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MART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미래를 여는 첫 걸음, 최첨단 디지털 글로벌 캠퍼스에서!

www.cpu.edu

2025년 가을 입학 설명회

Online 입학설명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Zoom ID: 829.947.6668

개강일: 2025년 9월 2일

★ 날짜와 시간은 미서부 기준

석사 | 목회학 박사과정

2025년 6월20일 (금) 오전 10시 / 오후 4시

학사과정

2025년 6월27일 (금) 오전 10시 / 오후 4시

선교학 | 선교학철학 박사과정

2025년 7월 3일 (금) 오후 4시

전과정 (선교학박사과정제외)

2025년 7월 11일 (금) 오전 10시 / 오후 4시

영어 M.Div. 과정

2025년 7월 18일 (수) 오후 4시

전과정 (선교학박사과정제외)

2025년 8월 8일 (금) 오전 10시 / 오후 4시

입학설명회 참석시 입학금 \$100 면제

15605 Carn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 562 926 1023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Cal Grant와 Pell Grant 학자금 지원

현역 및 재향군인 학자금 및 재정지원

각종 장학금과 학자금 혜택



학사과정

신학, 글로벌경영학, 가정상담학,
교육학, 중국어 신학

석사과정

목회학,
목회학 전문원목과정,
목회학 전문코칭과정,
선교학, 중국어 선교학,
상담심리학, 전문코칭학,
English M.Div.

박사과정

목회학, 선교학, 선교학 철학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2025년 학위수여식 성료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총장 최규남, GMU)가 2025년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을 2일 오후 7시에 거행하고 51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졸업예배는 김현완 교무학장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교수 및 졸업생들의 입장 후 기도, 찬송, 말씀봉독, 설교 순서로 진행되었다.

한기홍 목사(GMU 이사장)는 “본질에 충실한 사역자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는 “이제 사역의 현장에서 그동안 GMU에서 훈련받은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왔다. 복음에서 많이 벗어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미국에서 조차 복음으로 충만하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사역하는 것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졸업 후 본질, 즉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가 2025년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을 거행하고 51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기독일보

학위수여식에서는 안송주 학장과 김현완 학장이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수여했으며, 이병구 박사원 학장이 박사 학위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51명이 학위를 받았으며, 25명이 현장에, 26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강순영(DMiss), 최의식(DMiss), 이은옥(PhD in ICS,

인도선교사), 이지영(PhD in ICS, 네팔 국제 대학 학장) 등이 박사 학위의 영예를 안았으며, 11명이 학사학위, 23명이 목회학 석사, 7명이 기독교 교육학 석사, 4명이 기독교 상담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특히, 요르단, 이스라엘, 캐나다, 캄보디아, 중국, 독일,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캄보디아, 튜르키예,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선교지 선교사들과 현지인들이 학위를 받았다.

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통찰력과 지혜를 얻게 된다”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신이 아는 성경적인 지식을 실제 삶에서 실천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제자의 삶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영환 목사(동문회장)는 축사를 통해 사명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영적 중심을 잊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는 “사명의 길을 가시다가 지치고 힘들 때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졸업생 대표 안혜정 씨는 연설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돌아보며, 주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학위 수여식은 한기홍 이사장의 축도로 마무리되었다.

토마스 맹 기자

“AI, 설교자의 살아 있는 도서관” … ‘AI 설교 세미나’ 성료

AXMISSION, GMU,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 공동 주최

목회자들에게 있어 ‘AI’는 더 이상 낯선 기술이 아니다. 목회를 돋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 지난 6월 6일(금), LA온누리교회(이정엽 목사)에서 ‘AI 에이전트 활용법: 설교연구법, 자녀학습법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AXMISSION,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그레이스미션 대학교(총장 최규남 박사사)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강사로는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와 이종희 교수(GMU AI융합과정 디렉터)가 나섰다.

AI, ‘설교자의 확장된 뇌’

이종희 교수는 AI를 “설교자의 확장된 뇌”, “살아 있는 도서관”라며, AI를 활용해 설교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혹한 흑 목사님은 한 편의 설교를 위해 평균 30시간을 투자하셨다. 이제는 그와 같은 깊이 있는 준비를 AI를 통해 더 빠르게, 더 풍성하게 이룰 수 있다.”

그는 AI를 통한 자료 분석, 주석 비교, 문학적 구조 이해, 설교자별 스타일 전환, 성경 원어 분석 등 다양한 기능을 소개하며 “AI 시스템을 활용하면 시간을 단축시키고 생산성을 확장시킨다. 논문은 얼마나 방대한 논문들을 종합해서 제안을 제시하는가에 따라 수준이 결정한다. 설교를 준비하며 주석을 보며 죄책감을 느끼는가? 예수님께서 자



6월 6일(금), LA온누리교회(743 S. Grand View St, Los Angeles)에서는 ‘AI 에이전트 활용법: 설교연구법, 자녀학습법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기독일보

연을 이용하셨다. 설교는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설교 자료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수 많은 자료를 사용하면 된다. 최대한 많은 자료, 최대한 고급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설교자의 기술이다. 설교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기에, 최고의 리소스를 활용하는 것은 목회자의 책임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도서관에서 이런 자료를 찾기도 어렵지만 자료를 찾아도 며칠이 걸린다. AI 설교는 풍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AI를 통한 설교의 장점을 강조했다.

인스턴트 라면 같은 설교 경계

대신, 이 교수는 AI가 단편적으로 제공해 준 1~2 페이지 짜리 설교문을 그대로 강단에서 성도들에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인스턴트 라면 같은 설교’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경계했다.

또한, 수사학적 차원에서, 다른 설교자들의 스타일을 참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설교문을 찰스 스플런, 마틴 루터 킹, 마틴 로이드 존스, 존 파이퍼의 설교, 옥한 흄 목사님 스타일로 바꿔보는 것도 가능하다.”

세미나에서는 자녀 학습 교육에서의 AI 활용법도 소개되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수와 미분 개념을 설명하는 스토리텔링 챗봇, 암자 시험을 대비한 개인 맞춤형 학습 챗봇, 학습자의 오답 경향에 따라 문제를 재구성해 주는 시스템 등이 언급됐다. 또한, AI를 활용한 캐리어 준비를 위한 AXNOW와 AI를 활용한 설교 준비 플랫폼 dxchurch.org, axmission.org를 소개했다.

AI와 윤리적 및 창조성 문제

최윤식 박사(미래학자)는 가상의 평가자 특성을 바탕으로 설교 피드백을 받는 ‘엉클 탐 챗봇’ 등 다양한 기능을 지닌 챗봇을 설교에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하며, 질의 및 응답 시간을 이끌었다.

최 박사는 AI를 활용한 설교에 나타날 수 있는 윤리적 문제, 창조성, 인사이트의 문제 등에 답했다.

“많은 목사님들이 혼돈하는 게 있다. AI는 사람이 아니다. 살아 있는 도서관이다. AI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읽었다. 세익스피어 전집, 모든 전자 파일을 다 읽었다. 성경 주석도, 성경도 다 읽었고,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다 읽었다. 목사님들 서재에 있는 모든 서적을 다 읽은 것이다. AI가 준 자료를 바탕으로 설교문을 만드는 것은 목사님 개개인마다 다 다르다”고 설명했다.

‘AI와 차별화된 인간의 창조성과 통찰’에 관한 물음에 관련해, “창조성을 논리적 연관성과 서로 다른 것을 연결했을 때 나오는 것”으로 보는 관점에 따르면, “AI는 추론능력을 지녔고, 이 두 가지를 잘 한다. AI가 창조성 조차도 평균적 인간보다 높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인간에게 인사이트가 없어진 게 아니다. 인간이 인사이트를 얻는 방식이 달라졌다. 목사님이 설교에 대한 영감을 얻을 때, 심리학적으로 보고 싶다면, 목회상담하신 분들은 그 인사이트가 있다. 그런데 목회상담을 공부하지 못하신 분들은 AI에게 심리학자로 떠나기를 입혀 놓고, 본문에 대해서 심리학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내가 공부하지 않은 영역을 첨가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고 설명했다.

주디 한 기자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5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909-687-1649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 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 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수업 진행은 대면, 원격,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대학 제45회 학위수여식 성료

“하나님이 지휘하는 모험에 인생을 맡기라”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 이하 CPU)가 제45회 졸업감사예배 및 학위수여식을 지난 6월 7일 성대히 거행했다.

이날 행사는 선한정지기교회에서 열렸으며, 총 65명의 졸업생이 학사 및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번 졸업 감사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박태경 목사(캐나다 동신교회)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사도행전 11장 19~26절 본문을 바탕으로, 초대교회가 스데반의 순교 이후 위기 속에서도 복음의 지경을 넓혀간 사건을 언급하며,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겹순하면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목사는 자신의 신앙 여정도 소개하며,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을 때, 길을 개척해야 했다. 주님



CPU는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학사 5명, 목회학 석사 24명, 상담심리학 석사 10명, 선교학 석사 5명, 목회학 박사 2명, 선교학 박사 1명, 선교학 철학박사 9명 등 총 6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CPU Youtube

의 지휘를 따라 갔다”며,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여러분의 삶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고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CPU는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학사 5명, 목회학 석사 24명, 상담심리학 석사 10명, 선교학 석사 5명, 목회학 박사 2명, 선교학 철학박사

9명 등 총 6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중 35명은 원격수강 과정을 통해 학위를 취득했다.

졸업생 대표는 스피치를 통해 “인생의 절망 속에서 신학을 시작했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인도하신 것이 오늘이 자리에 서게 한 이유”라며, “삶은 여전히 예측불허하지만, 하나님의 선

한 계획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격려사를 전한 이상명 총장은 “여러분은 광대무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며, “실패를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최상의 작품으로 만들어가 수여되었다. 이날 축도는 선한정지기교회의 송병주 목사가 맡아 졸업생들을 축복했다. 토마스 맹 기자



“선교학적으로 본 위기상황의 여성 리더십- 버진 퀸 엘리자베스 1세를 중심으로”로 선교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소평순 박사(현 우크라이나 선교사). ©CPU Youtube

이를 묵상하며 사는 삶이 진정한 신학자의 길”이라 덧붙였다.

졸업식에서는 웨스트힐장로교회, 주님세운교회, 안나장학회에 감사패가 전달되었으며, 김인식 목사, 박성규 목사에게는 공로패가 수여되었다. 이날 축도는 선한정지기교회의 송병주 목사가 맡아 졸업생들을 축복했다. 토마스 맹 기자

월드미션대학 “사랑으로 사역하라” 졸업을 넘어 세상으로

제34회 학위수여식

학사 32명, 석사 65명, 박사 10명, 총 107명 학위 수여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는 6월 7일(토) 오후 1시에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제34회 학위수여식을 거행했다.

최윤정 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학위수여식은 신선록 부총장의 기도, 광고, 학사보고, 학위수여, 임성

진 총장의 연설, 송소현 학우의 특송, Netz Gomez의 축사, 졸업생 답사, 최다니엘 학우의 헌신의 기도, 교가 제창, 이광길 SOMA총장 축도의 순으로 진행됐다.

임성진 총장은 “오늘은 아주 기쁜 날입니다.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월드미션대학교 학생들은 전 세계, 여타나라, 미국 내 여러 주에서 공부하고 있다. 인도, 캄보디아, 카자

흐스탄, 캐나다, 한국 등 여러 곳에서 참석해 주셨다. 오늘 졸업식장에는 공부하는 동안 가족을 잊은 분도 계시고, 선교 사역에 열중하다 학업이 오래 걸린 분도 계신다. 특별히 2년 전부터 아프리카를 위해 후원해 주셔서 아프리카 4명의 학생이 졸업하게 되었다.”

“졸업은 새로운 출발이면서 세상 속으로 파송되는 날이다. 사랑의 마음으로 사역하기를 권면하고 싶다.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자유를 누리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 자유를 남을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섬김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셨듯, 우리도 발을 씻겨줘야 한다. 사랑 없이 하는 사역은 아무 의미가 없다. 사랑은 방법



제34회 월드미션대학교 학위수여식. 임성진 총장이 메시지를 전했다. ©기독일보

이 아니고 태도, 기술이 아닌 마음이다. 사랑으로 사역하라.”

이번 졸업식에서는 학사 32명, 석사 65명(MACP 24명, MAGL 6 명, MAM 9명, MAT 13명, MAWS

6AUD, MDiv 7명), 박사 10명(DMin 강유민, 박은곤, 변정민, 안선태, 이광천, 이승수, 한석 7명, DMin-CH 이덕화, 조용민, DMA 오위영), 총 107 명이 학위를 받았다. 주디 한 기자

→ 1면 기사 <설교 잘하려 하지 마십시오...>에 이어서

첫째는 ‘거울로 보는 방식’. 말씀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교훈을 받는다. 하지만 이것만 강조하면, 성도는 늘 정죄받는 느낌을 받는

다. 둘째는 ‘렌즈로 보는 방식’.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아픔, 깊이를 들여다보게 된다. 이때 성도는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결단하게 된다.

김 목사는 “설교자는 감동을 주려고 애쓰지 말고, 성경 본문이 성도의

마음을 만지게 해야 한다”며, “본문을 깊이 연구하면, 성도들은 ‘왜 제 이야기를 하세요?’라고 반응하게 된다. 말씀은 이미 성도의 삶과 상황에 정확하게 들어맞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설교 잘하려 하

지 말라.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 그것이 가장 강력한 설교”라며, “성경 본문이 말하게 하면,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그 말씀 안에서 듣게 된다”고 세미나를 마무리했다.

한편, 첫날 오전에 한국 혜민병원

이성수 소장에게 감사패 수여식이 있었다. 혜민병원은 지난 수년간 미주 한인 목회자 및 성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종합 건강 검진을 제공해 왔으며, 기독일보는 이를 알리기 위해 힘써왔다.

메디케어 전문 Agent

Annie Moon Lic# OB51378 문 혜 영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치과 Up to \$4,000~ Everyday Allowence(마켓, 유틸리티, OTC등)
안경, 보청기 Flex Card, Silver Sneaker + Extra Exercise 등등
메디케어만 가지신 분!
메디케어 & 메디칼을 동시에 가지신 분!
새로 메디케어를 받으실 분!
지방에서 이사오신 분 등!
모든 메디케어에 관한 정보와 문의는 애니 문과 상담하세요.

연락주세요! Annie Moon
T.(213)503-1669

메디케어 Plan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S랑하는
마음으로
G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나는 요나처럼 ‘기니’로 뛰어들었다”

서아프리카 기니. 세계 10대 빈국 중 하나이며, 90% 이상이 이슬람을 믿는 땅이다. 그곳 한복판에 태극기를 걸고, 특공무술을 가르치며 교회를 세운 한국인이 있다. 바로 장로교 대신측 파송 선교사인 앙드레 손 선교사다. 그는 지난 25년 가까운 세월을 이슬람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다. 말라리아에 12번이나 걸렸고, 도복 한 벌과 성경 한 권으로 시작된 그의 선교는 지금 기니의 선교역사로 기록되고 있다.

복음이 없는 곳, 아무도 가지 않은 곳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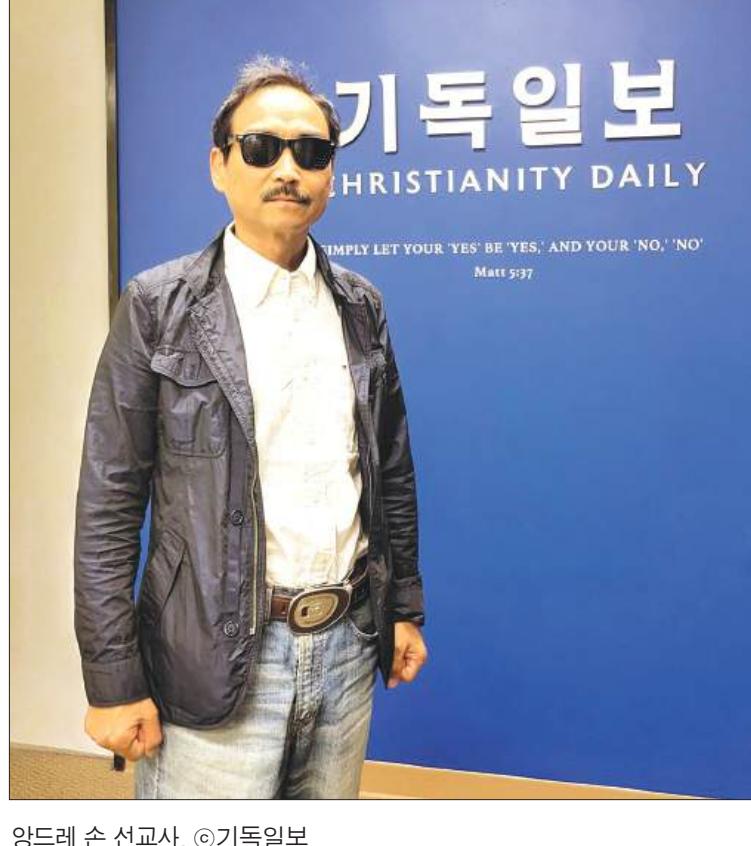
“세네갈에 갔더니 선교사가 80명이나 모여 있더라고요. ‘선교사가 없는 곳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기니가 없대요. 그 자리에서 바로 기니로 향했습니다”

2010년, 앙드레 선교사는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처럼 떠났다. 버스를 타고 도착한 첫날, 잘 곳이 없어 길거리에서 잠을 해결해야 했다. 물도, 전기도, 사람도 없던 땅.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가방 속 도복과 성경 한 권. 그리고 “날이 밝으면 도복을 입고 활동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성도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영적인 소통을 해서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과정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이런 영적인 경험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는 태권도 도복을 입고 태양 아래에 섰다. 처음 보는 동양인, 흰 도복을 입은 모습에 마을 아이들이 몰려들었다. 어느새 그는 그 마을의 ‘스타’가 되어 있었다.

“저희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몰려왔어요. 손을 잡고, 인사하고. 근데 손에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화장실에 물이 없으니 손으로 대충 더러운



앙드레 손 선교사. ©기독일보

물에 닦고 그냥 나에게 온거예요. 그래도 그 아이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안아주며 태권도를 가르쳤죠”

특공무술, 경찰학교, 태극기… 그리고 복음

앙드레 손 선교사는 ‘스포츠 전문 선교사’로 태권도, 합기도, 특공무술, 음악까지 다양한 무술과 예술을 도구로 복음을 전한다. 특히 그가 가르친 대상은 놀랍게도 현지 경찰 특공대였다.

“기니엔 한국 대사관도 없고, 완전 변방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어요. 한 경찰이 ‘우리 동생이 태권도 배우는데 너무 좋아한다’며 저를 경찰 부대로 초청했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가르치기 시작한 부대는 바로 국가 주요시설을 지키는 기니의 ‘1번 특공부대’. 이후 경찰학교의 정식 과목으로 특공무술이 채택되었고, 전국 29개 특공부대를 차례로 순회하며 훈련을 맡게 되었다.

“교회는 복음의 구심점이에요. 영적 도장입니다. 교회 없이 선교

“그때 깨달은 것은 요나의 배가 풍랑을 만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데, 요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뛰어내리겠다’며 희생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해 믿음으로 뛰어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경찰 부대에 가면 전 부대원이 줄을 서서 맞이했어요. 한국에서 왔다고 태극기를 걸었죠. 그 장면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 순간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현실이 되었음을 느꼈어요.”

앙드레 선교사는 단지 체육 교육에 머물지 않았다. 그의 핵심 사역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다. 이슬람 국가에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6~7년의 인내 끝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후 또 하나님의 교회도 세워졌다.

“교회는 복음의 구심점이에요. 영적 도장입니다. 교회 없이 선교

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가 있어야 예배가 있고, 훈련이 있고, 거기서 성도들이 세워지길 거죠.”

“그곳에 알카에다, 보코하람 등 테러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특공대들이 정신차리고 훈련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복음을 살짝 전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베스트셀러가 바이블이라고 말이죠. 현지 언어 노래를 배워 부르면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마음이 열릴 때 예수님을 전합니다”

기니 현지에선 장로교 교회가 전무했다. 그는 최초로 기니에 장로교 교회를 세운 선교사로서 선교사의 ‘특공대 정신’으로 버티고 견뎠다.

학교와 복음, 전략적 선교

“도장을 먼저 짓고, 학교를 세우자 했어요. 교회 허가가 어려우니까 학교를 통해 들어간 거죠.”

기니 정부로부터 학교 허가를 먼저 받고 이어 교회 설립까지 허가를 받았다. 영어, 수학, 한글 교육을 기본으로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함께했다. 처음부터 ‘이곳은 크리스천 학교’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무술을 배운 경찰들의 도움으로 선교 역사가 이곳에 크게 일어났다고 고백한다.

그는 선교지에서 많은 생명의 위기를 넘겼다. 말라리아에만 12번

걸렸다. 눈과 어깨, 발은 운동과 격파, 훈련으로 인해 손상되었다. 미국에 잠시 들어온 것도 그 후유증 치료를 위해서였다.

지금도 이어지는 선교

현재 그는 미국에서 집회를 인도하며 기니 선교 후원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엔 미주 대신 세계선교총회 강사로 섬겼다.

그는 지금도 웨스턴 유니언을 통해 기니에 매달 지원 받은 금액 300~400불씩을 보내고 있다. 말라리아에 걸린 친구들에게 한 사람당 20불이면 나을수 있는 치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앙드레 손 선교사의 발걸음은 태권도 발차기보다 강했고, 그의 무기는 검이나 총이 아닌 성경과 도복 한 벌이었다. 선교사가 한 명도 없던 기니 땅에 두 개의 교회와 하나님의 학교가 세워진 것이다.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예정하신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선교는 요나같은 심정을 가지고 뛰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선교사로서 ABCD를 완벽하게 하나님께 하도록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토마스 맹 기자



태권도, 합기도, 특공무술 전문 선교사인 앙드레 손 선교사는 기니 29개 특공부대를 순회하며 경찰을 훈련했다. ©기독일보

→ 1면 기사 <美 남침례회, 동성훈, 음란물, 낙태약 금지...>에 이어서 결의안은 온라인에서 합의하지 않은 음란물 이미지를 만들거나 공유하는 사람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

리는 ‘Take It Down Act’를 통과시킨 미국 의회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했다.

세 번째 결의안에서는 임신 중절 산업에 의한 여성 착취를 비난하라”고

촉구했다. “(우리는) 미국 의회와 주 의회에 화학적 임신 중절 약물의 제조, 판매, 유통 및 우편 발송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키고 이러한 피해에

연루된 제약 회사와 의료 서비스 제공

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촉구한다.”

최근 몇 달 동안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오버제벨 판결을 뒤집고 각 주가 동성 결혼을 금지하려는 노력이 커지고 있다. 1월에 아이다호 주 의

원들은 대법원의 판결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미시간, 몬태나,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등 몇몇 주에서도 유사한 제안이 지지를 얻고 있다.

아버지 밤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행인 : 이안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밴쿠버헤브론교회 담임목사 청빙공고

밴쿠버헤브론교회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성령의 능력으로 열방을 품는 미라클 센터로 성장하는 교회로
캐나다 BC주의 Langley에 소재하는 교회입니다. 본 교회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서북미 노회에 속해 있습니다
1대 목사님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반석위에 세워진 저희 교회가 귀한 영혼 구원의 더 큰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사명을 잘 감당하실 새로운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하고자 합니다

지원자격

- ▶ KAPC 교단 소속 목회자 또는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 본 교단에서 인정하는 정규대학과 신학대학원(M.Div.)졸업하신 분
- ▶ 전임사역자 이상 목회경력 5년 이상인분(만40세 이상 - 만 55세 미만)
- ▶ 캐나다 영주권 또는 동등 이상으로 캐나다내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 한국어 및 영어 설교가 가능하신 분

접수방법

- ▶ 이메일: hebronchurch2026@gmail.com
- ▶ 주 소: 6656 Glover Road, Langley, BC V2Y 0W9
- ▶ 문 의: 청빙위원장 서해철 장로, 총무 전문성 장로
(이메일 문의만 가능함)

제출서류

- ▶ 국문 및 영문 이력서(학력, 경력 및 가족관계 포함 및 가족사진 첨부)
- ▶ 자기소개서(신앙고백과 목회경험, 성장배경, 자신의 목회 비전에 영향을 끼친 책이나 목회자 포함)
- ▶ 목회자 2인의 추천서(추천인 연락처 포함, 추천서는 추천인이 본 교회 청빙위원회로 직접 발송)
- ▶ 졸업(학위) 증명서(학사 및 석사)
- ▶ 본 교단의 노회에서 발행한 안수 증명서
- ▶ 최근 국문 및 영문 설교영상 2부 및 설교문 2부(Youtube 링크 가능)
- ▶ 모든 서류는 Pdf Format으로 제출

제출마감

- ▶ 서류접수 마감일: 2025년 7월 12일 자정까지
-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검토 후 반환하지 않고 폐기합니다

© 센터메디컬그룹

사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손을 잡은 순간
어릴 적 그때로
바람이 데려가네요.

넘어질까 두려워
굳게 쥐던 아버지 손
그 온기만은 세월을 넘어
내 안에 살아 있습니다.

멀리 있어도, 시간이 흘러도,
센터메디컬그룹이
늘 아버지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 센터메디컬그룹

문의연락 888-847-3098

센터메디컬그룹 TV



진화론, 창조론 공격하며 복음의 터 무너뜨려

'제5차 인천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 열려

'제5차 인천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가 9일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송월교회(담임 박삼열 목사)에서 열렸다. 인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와 예장 합신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강의는 노회성 대표(전 과학교사, 예스티칭연구소 소장)는 '나는 이렇게 창조와 진화에 대한 답을 찾았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엔에스)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실제와 대안', 육진경 대표(전 국교사회복연합 대표)는 '교과서에 나타난 성혁명 교육에 대한 분석과 대안', 현숙경 교수(침신대)는 '문화 막시즘과 성혁명 역사'라는 주제로 각각 전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노회성 대표는 "왜 성경이 창조를 가르쳐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창세기가 없다면 성립되지 않는다. 복음을 사수하려면 창세기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노 대표는 "2009 개정교육과정 고1과학(금성)에는 '폭발이 일어난 직후 우주는 극도로 높은 온도로 인해 매우 혼란스러웠다'고 서술됐다. 이는 가설로 논란이 분분한 빅뱅이



주요 관계자들과 강연자들이 단체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론이 마치 역사적 기정사실인 것처럼 서술돼 있어 다소 문제가 있다. 이럴 경우 다음 세대들의 비판적 사고는 삐제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현재 과학교과서는 진화론을 통해 우리 존재의 탄생이 물질의 충돌과 반응의 결과에 불과한 곧 유물론적 사관에 입각시켜 교육하고 있다"며 "2015 개정교육과정 과학 1(천재)는 '생물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환경에 적응하여 변화하는 현상을 진화한다'고 명시했다. 논리적으로 맞지만 진화론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나 "교과서는 진화론적 관

점에 입각하면서 다음 세대들이 진화론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게끔 세뇌하고 있다"며 "절저한 무신론자인 과학자 칼 세이건은 우주 역사 138억 년 가운데 인류는 고작 약 20만 년만 살았으며 인간은 우주의 면지에 불과한 소중하지 않는 존재로 격하시켰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해 2015 개정교육과정 고1(천재)에서 인간에 대해 '지구에 현생 인류가 출현한 것은 약 20만 년 전으로...'라고 서술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들은 빅뱅, 진화론 등 유물론적 인간관으로 길들여지면서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닌 우주의 면지에 불과한 하찮은 존재로 여기게끔 교육받는다"고 했다. 그는 "유물론은 18세기 철학자 데이비드 흄이 감각 경험을 통해 경험되는 것만 진리라며 주장한 자연주의에서 비롯됐다. 이를 통해 우리의 경험 밖에 존재하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만들었고, 이러한 세계관이 임마누엘 칸트를 통해 발전됐다. 그는 감각 경험과 이성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만 진리의 대상이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헤겔은 신과 종교는 인간 정신 활동의 산물로 관념에 존재하는 완전한 인식과도 같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칸트와 헤겔을 통해 인격적이고 초월적인 절대자 하나님은 제거됐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의 상상과 신화로 구성된 문서로 격하시킨 자유주의 신학이 발전하기 시작했다"며 "이러한 자연주의적 개념은 물질세계에서만 진리가 발견될 수 있다고 하기에, 여기에서 물질세계만 다루는 진화론이 나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교과서를 통해 진화론적 관점이 사고의

역사는 거짓 ▲인류의 첫 조상은 아담이 아니다 ▲죽음은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들어온 게 아니다 ▲인류 역사는 계획과 목적 없이 진화한다 ▲인류가 순종해야 할 절대 기준은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했다.

그는 "결국 진화론으로 첫 아담의 범죄가 삭제되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받는 복음이 성립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그는 "진화론의 후예들은 마르크스의 공산주이다. 엥겔스는 '다윈이 생물의 진화법칙을 발견했듯이, 마르크스는 인류의 진화법칙을 발견했다'며 진화론과 공산주의는 한 뿐 리라고 서술했다. 또한 히틀러의 나치즘은 진화론에 기초한다. 그는 『나의 투쟁』에서 우생학에 근거한 대학살이 향후 인류의 진화에 일조할 것이라고 서술했다"고 했다.

또한 "최근 유발하라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학자 중 한 명이다"라며 "창조론을 사수하지 않다면 동성애와의 전투는 오히려 유물론적 사고관을 강화할 따름"이라고 했다.

노령구 기자 [다음호에 이어서]

수영로교회, 50주년 맞아 작은 교회에서 '흩어지는 예배' 드려



수영로교회 전경 모습 ©수영로교회

부산 수영로교회(담임 이규현 목사)가 8일 '흩어지는 예배'를 드렸다. 이는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아 성도들이 수영로교회 본당이 아닌, 전국의 농어촌·미자립·고향교회 등 작은 교회로 흩어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자"는 취지로 진행됐다.

교회 측은 "선교교회"라는 이름으로 첫 예배를 드린 이후 온 열방

'흩어지는 예배'에 대해 이규현 목사는 "흩어지는 교회"는 50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 원형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시작이 되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교회고 성령 충만한 교회였지만 결국은 안디옥교회를 통하여 그 교회가 오늘날 현대 교회가 형성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는 교회였다면 안디옥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였다"며 "수영로교회는 50년 전 개척한 후 출발할 때가 선교적 교회였다. 이 선교회는 우리끼리만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온 땅에 흩어지는 선교적 공동체, 선교사적 교회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출발했다"고 했다.

이어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해 우리끼리 모여서 큰 예배당에서 굉장히 멋있게 기념예배를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고 좋은 일이겠지만, 오히려 힘을 빼고 우리 이웃과 세계,

또 이웃 교회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면 좋겠다는 취지로 시작하게 되었다. 이번 50주년에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흩어지는 것인데 한 번 흩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무엇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온 교회가 흩어지는 자로서 선교사적 의미, 우리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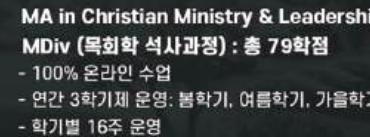
그러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큰 은혜를 이제는 이웃 교회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그 은혜가 흩어져 한국 교회 전체에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 뜨겁게 타오르는 부흥의 불길이 되기를 기대하며, 연약한 이웃 교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계획하게 되었다.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참여하는 성도분들께서 직접 고향 교회, 이웃 교회, 미자립 교회, 농촌 교회, 선교지 등 곳곳으로 흩어져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들을 축복하며,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복과 부흥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런 후에 돌아오신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전과 비전, 그리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실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 목사는 "이번 한 번의 행사로 모든 것이 완성되지는 않겠지만, 이 시간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를 어떻게 섬길지, 또 세계 선교를 어떻게 감당할지를 함께 고민하고 시작하는, '선교적 공동체'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되리라 생각한다. 모든 성도가 선교사로 부름받은 이 시대에, 여러분도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온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 상징적인 예배에 여러분 모두가 기쁨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 이 일이 한국 교회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이며, 많은 교회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린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미국교수와 한국교수의 콜라보! 신학/목회학 석사 100% 온라인 수업

목회학 박사(캠퍼스 인텐시브)



MA in Christian Ministry & Leadership : 총 49학점

MDiv (목회학 석사과정) : 총 79학점

- 100% 온라인 수업
- 연간 3학기제 운영: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 학기별 16주 운영
- 학기당 3학점 두 과목 이수 가능 (연간 18학점 수강 가능함. 사역실습은 별도)
- 매주(총16주간) 미국인 담당교수의 동영상 강의 시청
- 한국인 교수의 실시간 온라인 수업
- 한국인 교수의 수업 내용(수업 주제 리뷰 + 발표 + 퀴즈풀이 + Q&A)

Ed Stetzer, Ph.D.

탈보트 교수진은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 입장에서 신학도들과 사역자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탈보트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양성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세상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학장 인사말

탈보트에서 신학교육을 받아야 하는 7가지 이유

1. ATS/WSCUC 정회원교로서 기독교 정신과 학문적 수준을 갖춘 최고 수준의 신학대학원입니다.
2. 성경의 무오성을 주장하는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의 선두주자입니다.
3. 교수진은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을 고수하며, 저명한 학위와 학술 작품을 발표한 학자들입니다.
4. 바이올라 대학교에 소속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재정적으로 안정된 신학대학원입니다.
5. 신학 교육의 혁신을 통해 영성형성을 토대로 하는 전인적 교육을 실시합니다.
6. 초교파 신학교로서 성경강해를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제자도에 집중합니다.
7. 신학지식 뿐 아니라 인격과 성경, 사역을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배움의 장입니다.



모집 요강

(미국) 913 202 4084, (한국) 010 3024 5958

korean.masters@biola.edu

biola.edu/talbot-korean

교수소개 Faculty * 아래 교수진은 석사 과정 강의자 중심이며 탈보트에는 그 외에 더 많은 교수진이 있음

Minsoo Sim, Ph.D/ Th.D Professor of Christian Education & Practical Theology, Director	Eddie Byun, D.Min.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Benjamin C. Shin, D.Min.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	Clinton E. Arnold, Ph.D. Research Professor of New Testament	John Coe, Ph.D. Professor of Spiritual Theology	Sunny Song, Psy.D.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
Daniel E. Kim, Ph.D. Associate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	Scott Rae, Ph.D. Professor of Philosophy and Christian Ethics	Gary Manning, Ph.D. Professor of New Testament Language and Literature	Joanne Jung, Ph.D. Professor of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	Ashish J. Naidu, Ph.D. Professor of Theology	Mark Saucy, P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Doug Geringer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 Language and Literature	Kevin Van Lant, Ph.D.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	Rob Price, Ph.D. Associate Professor of Theology	Kenneth C. Way, Ph.D.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	Ryan S. Peterson, Ph.D. Associate Professor of Systematic Theology	R. Scott Smith, Ph.D. Professor of Christian Apologetics
Kyle Strobel, Ph.D. Associate Professor of Spiritual Theology	Uche Anizor, Ph.D. Professor of Theology	Karin Stetina, Ph.D. Professor of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	Jeannine Hanger, Ph.D.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	Dominick Hernández, Ph.D. Associate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	J P Moreland Distinguished Professor of Philosophy

S 사랑하는 M 마음으로 G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이 No.1인 이유는

늘 따듯한 마음으로 가족을 지켜온

오늘의 당신 덕분입니다

우리에게 No.1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No.1은 당신입니다

더 많은 사랑으로

더 건강한 시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달라스 종회, 1,000 명 이상 운집 제44차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종회 개막

2025년 6월 9일, 제44차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정기총회가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 뉴송교회(현지용 목사)에서 성대히 개막했다.

이번 종회에는 등록인원 1,014 명이 참석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우며 북미 한인교계 최대 규모의 종회로 자리매김했다. 미주 전역에서 모인 한인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말씀과 교제를 나누며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되새기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총회 첫날 저녁 집회에서는 뉴송교회 담임 현지용 목사가 히브리서 10장 23~24절을 본문으로 '굳게 잡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현 목사는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하신 말씀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권면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기



달라스 뉴송교에서 제44차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종회가 열렸다.

도와 찬양으로 은혜의 시간을 이어갔다.

이번 종회에서 눈길을 끄는 이색적인 시도도 이뤄졌다. 처음으로 마련된 '은퇴목회자 모임'에 은퇴한 목회자 부부들이 참석해 특별한 감동을 자아냈다. 종회 관계자는 "평생을 목회 사역에 헌신하

신 선배 목회자들을 위해 이번 모임을 준비했다"며 "은퇴하신 목회 선배들의 종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했고, 좀 더 평안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은퇴목회자들은 오랜만에 동료들과 만나 사역의 추억을 나누고 후배 목회

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며 종회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갔다.

행정 운영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종회 실행위원장 안광문 목사는 "사전 온라인 등록을 대폭 강화하고, 현장 등록 역시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해 혼선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참가자들이 등록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고 오직 말씀과 교제, 사역 나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췄다"고 강조했다.

한인교회 정기총회는 단순한 연례행사를 넘어 미주 한인 침례교회 전체의 방향성과 비전을 공유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하고 있다. 종회 기간 동안 신학 세미나, 선교 포럼, 차세대 리더십 네트워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특히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위한 리더십 훈련과 지역 선교 전략 발표가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종회를 준비한 뉴송교회와 텍사스 북부지방회(달라스 지역) 교회들은 수개월 전부터 봉사팀을 조직하고 철저한 준비에 나섰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봉사자들이 안내와 지원을 맡아 참석자들의 편의를 도왔다. 참가자들은 "체계적인 준비와 세심한 배려가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창한 기자

포르노는 인간성과 사회를 파괴하는 중독의 관문이다

**아동 성범죄 증가, 인간관계 파괴, 뇌 손상까지…
포르노 중독은 개인과 국가 모두를 병들게 한다**

"내 집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 한 젊은이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 모퉁이에서 그녀의 집으로 향했노라… 밤중, 어둠 가운데에… 보라, 한 여인이 그를 마주하였노라" (잠언 7:6~10).

컴패스케어 임신 서비스(CompassCare Pregnancy Services)의 CEO이자 의료윤리학자인 짐 하든 목사(Rev. Jim Harden)가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포르노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글을 기고했다. 다음은 그의 기고문 전문이다. 오늘날의 남성은 더 이상 거리 모퉁이를 배회하지 않는다. 대신 인터넷을 탐색한다. 그리고 그 새로운 '거리 모퉁이'는 바로 포르노 사이트다.

◆디지털 시대의 도덕적 전염병

포르노는 디지털 시대의 도덕적 바이러스다. 미국인의 91%가 스마트폰을 소지한 오늘날, 이 바이

러스는 세대와 계층을 가리지 않고 퍼지며 사회의 문명성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성경의 경고처럼, "그녀는 모든 거리 모퉁이에 숨어 있다"(잠언 7:12)는 말은 이제 인터넷 환경에서도 적용된다.

인터넷은 생산성과 정보 전달, 표현의 자유를 위한 경이로운 도구이지만, 일부 포르노 유포자들은 이를 도덕적 폐수의 배출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그들은 자유 표현이라는 미명하에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오염시키며, 결국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집단 양심을 마비시키고 있다.

◆도덕 붕괴가 초래할 국가적 재앙

포르노 중독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개인의 양심뿐 아니라 국가의 청결성까지 잃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에게 죽임을 당한 자는 많고, 그녀의 집은 스울로 가는 길"(잠언 7:26~27)이라고 경고한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전 대

통령 또한 "자유 제도는 시민의 인격에 기초하며, 악을 숭배하는 사회는 자유를 누릴 자격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과거엔 교회 강단이나 신문, 라디오, TV가 그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인터넷이 수십억 인구가 참여하는 공적 담론의 장이 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담론의 힘을 끊은 기업들은 그 힘을 책임감 있게 행사해야 한다.

◆관계 파괴와 사회적 폭력의 연결고리

포르노 산업은 미국 사회의 도덕적 산소를 빨아들이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질식시키고 있다. 성경은 성적 접착이 파멸로 이어진다고 거듭 경고한다. 솔로몬 왕은 아들에게 경고한다. "그녀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잠언 5:5),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잠언 5:8), "어찌하여 간음녀로 인해 도취되려 하느냐"(잠언 5:20).

그리고 그는 해답을 제시한다. "너의 젊은 아내와 즐거워하라… 그녀의 사랑에 항상 도취되어라"(잠언 5:18~19). 건강한 성은 남녀 간의 상호적이고 독점적인 결혼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혼과 가정을 대신한 포르노는 일탈과 범죄를 부추긴다. 실제로 여러 연구와 수사기관은 포르노 소비와 아동 성범죄 증가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매달 850명의 남성이 온라인 아동 성범죄 혐의로 체포되고 있으며, 성인의 약 2%가 아동에게 성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아동들이 4세에서 5세부터 포르노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명백한 아동 성학 대이며, 아동 간 성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성범죄의 25%가 미성년자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적 문제를 보이는 아동이 늘고 있으며, 포르노 접근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신경과학 연구는 포르노가 성인의 뇌 구조까지 변화시켜 폭력적이고 왜곡된 성행동을 정상화시키며, 이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폭력 및 인신매매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신매매와 인권 유린의 온상

미국 내 실종된 이민자 아동은 30만 명이 넘고, 이를 상당수가 성노예로 전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97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포르노 산업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즉 표현의 자유를 방해로 삼아 그 수치스러운 실제를 가지고 있다. 포르노는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범죄와 인신매매의 관문이자 중독성 있는 약물과도 같다. 이를 통해 가해자는 양산되고, 피해자는 상품화된다.

◆해법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태주 공화당 상원의원 마이크 리(Mike Lee)는 상식을 되살리기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그는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CDA) 제230 조가 포르노 등 음란물에 대한 규제를 면제하는 맹점이 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발의안인 '주간 음란물 정의법'은 포르노를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불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은혜 기자

CROCKETT HONEY

자연의 정직함, 건강을 선물하세요

미국 프리미엄 허니 브랜드 -

CROCKETT HONEY

아리조나 사막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세 가지 특별한 꿀이 건강과 품격을 전합니다.
한국 방문 시,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꿀·꽃가루·로열젤리의 황금 조합

자연이 준 면역력, 에너지, 항산화 효과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Desert Blossom Mesquite Honey
Honey 3lbs \$25+tax

Crockett Honey (Original)
Bee Pollen Net Wt. 1.25 lbs (567g) \$45+tax

Royal Jelly
Royal Jelly \$25+tax

1 Desert Blossom Mesquite Honey
사막의 야생화와 메스키트 꽃에서 채집된 부드럽고 향기로운 맛! 풍부한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이 가득한 천연 꿀

2 Crockett Honey (Original)
가장 순수한 꿀의 기본! 건강한 단맛과 자연 그대로의 영양을 담은 전통의 맛! 차, 토스트, 요리에도 다양하게 활용 가능

3 Crockett Honey with Royal Jelly
꿀 속의 황제, 로열젤리를 더한 프리미엄 건강식품!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 탁월한 영양 강화 꿀!
특별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로 안성맞춤

(Pick up Only) 전화 예약주문 213-434-1170 prozusa1@gmail.com Pick up 장소: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224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중/어예배 오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홍장로교회

파송가,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길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찰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F. (310) 530-8400/cornerstonetv.com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집으로 오병이어의 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www.torrancecg.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6:00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EM(정년예배) 오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이종용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방상용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정유성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9:30am 새벽기도회 7:30pm

주일3부예배 11:15am 토요찬양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장유성 담임목사

고창현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www.okcrc.org

구봉주 담임목사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장마다예배 오전 11:30

영어성도부 오전 9:30, 11:30

한국대학원대학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이우호 담임목사



LA노벨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지영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주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림학준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김한요 담임목사



성인 양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일반인 예배 오후 1:15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박신웅 담당목사



アルバ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김기홍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부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령청부부 오후 2:30

한기홍 담임목사



온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월~금) 6: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7:3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박훈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월~금) 6:00(토)

주일 예배 오후 7:30

신용환 담임목사



함께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un@hanmail.net

주혁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월~금) 5:30(토)

주일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월~금) 6:00(토)

청년예배 EM 오후 1:30

주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8:00 AM 금요찬양예배 7:45 PM

주일예배 11:00 AM 교회학교예배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 6:00 AM

주님세운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는 나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국

PCUSA, 이번엔 성직 후보자에 '동성애 견해 요구' 논란



PCUSA총회. ©페이스북

십수 년 전 동성애자에 대한 성직 임명을 허용한 미국장로교(PCUSA)가 최근 성직자 후보자들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견해'를 묻도록 요구하는 규례서 개정안을 최종 승인한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목회자들은 개정안이 양심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4-C 개정안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후보자들에게 성직지향과 성정체성을 포함한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묻도록 규정하기 위해 규례서 G-2.0104b를 개정한 것으로, 지난해 열린 제226차 PCUSA 총회에서 297대 130으로 통과됐다. 이후 지난 5월 노회(지역 기구)의 과반수를 확보해 오는 7월 4일(이하 현지시각)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해당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개서한을 지지한 PCUSA 소속 목회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많은 이들이 신앙과 양심의 자유가 박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공개서한 작성자 중 한 명인 조지 아주 애틀랜타제일장로교회 토니 선더마이어(Tony Sundermeier) 목사와 그의 아내 케이티 선더마이어(Katie Sundermeier) 목사는 "새로 승인된 개정안은 불필요하고 현명하지 못한 것이다. '성소수자 개인이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핵심적인 확언은 이미 개정안 24-A를 통해 확보됐으며, 우리는 이를 전적으로 지지했다. 이는 정의와 목적, 명확성을 모두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24-C는 후보자의 신학적·종교적, 그리고 관계적 성향이 성직지향과 구체적으로 그리고 은밀하게 연관되는 방식에 대한 평가적 탐구를 도입한다. 이것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부부는 동성결혼식을 주례했고, 성소수자들의 성직 안수를 지지했지만, 포용이 은혜로운 환영이 아닌 강요된 정통 교리가 될 때 그 포용은 도덕적·영적인 힘을 잃는다"고 했다.

이어 "이제 더 이상 포용이 아닌 통제와 배제의 문제다. 최종안은 안수 기관이 헌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신학적 신념을 근거로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양심의 자유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또 24-C의 구조와 어조는 일부 신학적 신념, 특히 진보적인 성과 성별 규범에 반대하는 신념은 이제 성직 안수에 부적합하다고 간주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문서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이다. 우리는 정치가 어떻게 정책이 되고, 정책이 어떻게 예외가 될 수 있는지 목격했다"고 덧붙였다.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있는 레이크스 장로교회의 페르디 브리츠(Ferdi Britz) 목사는 CP와의 인터뷰에서 "새로 승인된 개정안은 내 양심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다고 생각한다"며 "성경적이지 않은 견해에 동의하지 않으면 교단에서 지도적 역할을 맡을 수 없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배제"라고 했다.

美 캘리포니아 해변서 2만 6천여 명 동시 침례… 사상 최대 규모



©CBN뉴스 보도화면 캡처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각) 오순절 주일을 맞아 미국 캘리포니아의 해변에서 수천 명의 신자들이 침례를 받고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했다.

미국 CBN뉴스에 따르면, 이 '미국에 세례를'(Baptize America) 캠페인에는 50개 주에서 650개 이상의 교회가 참여했으며, 무려 26,000명 이상의 신자들이 침례를 받았다. 주최측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동시 침례' 행사"라고 밝혔다.

행사의 주최자 중 한 명인 마크 프랜시(Mark Francey) 목사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다. 우리가 모두 동의하는 물세례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2년 전 '캘리포니아에 세례를'(Baptize California) 캠페인으로 시작된 이 행사는 해마다 참여하는 신자들의 수가 급증했다. 처음에는 4천여 명에 불과했던 세례자 수는 지난해 6천 명을 넘었고, 올해는 전국 규모로 확대됐으며, 깊은 영적 뿌리를 지닌 해변인 파이러츠 코브에서 대규모 모임으로 마무리됐다.

이곳은 2023년 영화 '예수 혁명'(Jesus Revolution)에서 묘사된 것처럼, 1970년대 '예수 운동' 당시 척 스미스(Chuck Smith) 목사가 대규모 침례를 집전했던 역사적인 장소로, 이번 행사는 상징적의

미를 더했다.

이 행사는 참석자들에게 단순한 기념비나 이정표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각자의 영적 여정에서 깊은 변화를 경험한 이들은, 그날의 침례를 매우 개인적이고 감동적인 순간으로 기억했다.

한 참가자인 가브리엘(Gabriel)은 "저는 중동에서 저지른 활동으로 죽거나 감옥에 있을 수도 있었다. 어머니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침례를 받은 순간의 깊은 감격을 나눴다.

형과 함께 침례를 받은 호르헤 곤잘레스(Jorge Gonzalez)는 "하나님께서 제 모든 마음의 끈을 잡아당기셨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마침내 예수님을 제 구주로 영접했다. 그 순간이 바로 완벽한 기회였고, 삶의 전환점이 됐다"고 했다.

자원봉사자들도 그날의 감동적 분위기 속에서 큰 영감을 받았다. 캠페인을 섭진 자원봉사자 알리사 서클(Aliisa Circle)은 "가장 멋진 부분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마크 프랜시 목사는 이번 행사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며,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 해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구 끝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美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 92세로 사망



월터 브루그만.

현대의 가장 존경받는 성서학자 중 한 명이자 미국 신학계의 예언적 목소리였던 월터 브루그만(Walter Brueggemann)이 9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영국 크리스천트레이디(CT)에 따르면, 그는 6월 5일(이하 현지시간) 미시간주에 있는 자택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60년이 넘는 뛰어난 경력 동안 브루그만은 1백권이 넘는 책과 수많은 글을 저술해 왔다.

그의 신학적 유산은 그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목사들의 설교를 통해 지속되고 있다. 특히, 1978년 출판된 그의 획기적인 저서, '예언적 상상력'(The Prophetic Imagination)은 1백만 부 이상 판매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신학교에서 널리 가르치고 있다.

브루그만은 조지아주 디케이터에 있는 컬럼비아 신학교에서 구약학 명예교수로 재직하며 2003년 은퇴할 때까지 가르쳤다. 다작의 저술가이자 교사, 그리고 설교자로서, 그의 학문은 히브리어 성서, 특히 예언서 본문에 집중되었다. 그의 연구는 성경에 대한 기준의 통념에 도전하고,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듣는 것을 강조했다.

윌리엄 마르셀러스 맥피터스 구약학 교수인 윌리엄 P. 브라운 박사는 "성서 학문의 세계는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루그만은 컬럼비아 신학교에서 다작의 사역을 통해 교회와 세상의 유익을 위해 성경 연구를 독보적으로 재정립했다. 수많은 학생과 목회자들이 브루그만의 가르침과 저술을 통해 변화되었다.

브루그만은 연합 그리스도 교회(United Church of Christ)에서 안수를 받았지만, 목회직을 맡은 적은 없다. 하지만 그는 설교자이자 강사로서 높은 수요를 누렸으며, 성경에 깊이 뿌리 내리면서도 사회, 정치, 경제 현실을 거칠없이 다루는 설교로 유명했다.

그는 소비주의, 민족주의, 군국주의에 대해 종종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했는데, 이는 당파적 견해 때문이 아니라 신앙이 불의에 맞서야 한다는 예언적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1933년 네브래스카주 틸든에서 태어난 브루그만은 미주리주 블랙번에서 자랐으며, 그의 아버지는 북미 독일 복음주의 교단의 목사였다. 심대 시절, 그는 형과 함께 지역 흑인교회를 방문했는데, 이 경험은 평생 사회 정의에 대한 그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엘름허스트 대학, 애덴 신학교, 유니온 신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이후 세인트루이스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애덴 신학교 교수로 부임한 후 1986년 컬럼비아 신학교로 옮겨 남은 학업 생활을 그곳에서 보냈다.

브루그만은 은퇴 후에도 기독교 사상에 있어 다작의 목소리를 내며 만년에도 에세이, 성찰, 강연을 꾸준히 했다.

그는 목회자들과 학생들을 멘토링했고, 미국 UMC(United Church of Christ) 모임에도 꾸준히 참석했다. 유족은 아내와 아들 2명이 있다.

이미경 기자

美 캘리포니아 해변서 2만 6천여 명 동시 침례… 사상 최대 규모



©CBN뉴스 보도화면 캡처

미를 더했다.
이 행사는 참석자들에게 단순한 기념비나 이정표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각자의 영적 여정에서 깊은 변화를 경험한 이들은, 그날의 침례를 매우 개인적이고 감동적인 순간으로 기억했다.

한 참가자인 가브리엘(Gabriel)은 "저는 중동에서 저지른 활동으로 죽거나 감옥에 있을 수도 있었다. 어머니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침례를 받은 순간의 깊은 감격을 나눴다.

형과 함께 침례를 받은 호르헤 곤잘레스(Jorge Gonzalez)는 "하나님께서 제 모든 마음의 끈을 잡아당기셨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마침내 예수님을 제 구주로 영접했다. 그 순간이 바로 완벽한 기회였고, 삶의 전환점이 됐다"고 했다.

자원봉사자들도 그날의 감동적 분위기 속에서 큰 영감을 받았다. 캠페인을 섭진 자원봉사자 알리사 서클(Aliisa Circle)은 "가장 멋진 부분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마크 프랜시 목사는 이번 행사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며,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 해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구 끝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미국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 92세로 사망



월터 브루그만.

현대의 가장 존경받는 성서학자 중 한 명이자 미국 신학계의 예언적 목소리였던 월터 브루그만(Walter Brueggemann)이 9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영국 크리스천트레이디(CT)에 따르면, 그는 6월 5일(이하 현지시간) 미시간주에 있는 자택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60년이 넘는 뛰어난 경력 동안 브루그만은 1백권이 넘는 책과 수많은 글을 저술해 왔다.

것"이라고 말했다.

월터 브루그만은 컬럼비아 신학교에서 다작의 사역을 통해 교회와 세상의 유익을 위해 성경 연구를 독보적으로 재정립했다. 수많은 학생과 목회자들이 브루그만의 가르침과 저술을 통해 변화되었다.

월터 브루그만은 연합 그리스도 교회(United Church of Christ)에서 안수를 받았지만, 목회직을 맡은 적은 없다. 하지만 그는 설교자이자 강사로서 높은 수요를 누렸으며, 성경에 깊이 뿌리 내리면서도 사회, 정치, 경제 현실을 거칠없이 다루는 설교로 유명했다.

그는 소비주의, 민족주의, 군국주의에 대해 종종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했는데, 이는 당파적 견해 때문이 아니라 신앙이 불의에 맞서야 한다는 예언적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월터 브루그만은 은퇴 후에도 기독교 사상에 있어 다작의 목소리를 내며 만년에도 에세이, 성찰, 강연을 꾸준히 했다.

그는 목회자들과 학생들을 멘토링했고, 미국 UMC(United Church of Christ) 모임에도 꾸준히 참석했다. 유족은 아내와 아들 2명이 있다.

이미경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해변서 2만 6천여 명 동시 침례… 사상 최대 규모



©CBN뉴스 보도화면 캡처

미를 더했다.
이 행사는 참석자들에게 단순한 기념비나 이정표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각자의 영적 여정에서 깊은 변화를 경험한 이들은, 그날의 침례를 매우 개인적이고 감동적인 순간으로 기억했다.

한 참가자인 가브리엘(Gabriel)은 "저는 중동에서 저지른 활동으로 죽거나 감옥에 있을 수도 있었다. 어머니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침례를 받은 순간의 깊은 감격을 나눴다.

형과 함께 침례를 받은 호르헤 곤잘레스(Jorge Gonzalez)는 "하나님께서 제 모든 마음의 끈을 잡아당기셨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마침내 예수님을 제 구주로 영접했다. 그 순간이 바로 완벽한 기회였고, 삶의 전환점이 됐다"고 했다.

자원봉사자들도 그날의 감동적 분위기 속에서 큰 영감을 받았다. 캠페인을 섭진 자원봉사자 알리사 서클(Aliisa Circle)은 "가장 멋진 부분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마크 프랜시 목사는 이번 행사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며,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 해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구 끝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미국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 92세로 사망



월터 브루그만.

현대의 가장 존경받는 성서학자 중 한 명이자 미국 신학계의 예언적 목소리였던 월터 브루그만(Walter Brueggemann)이 9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영국 크리스천트레이디(CT)에 따르면, 그는 6월 5일(이하 현지시간) 미시간주에 있는 자택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60년이 넘는 뛰어난 경력 동안 브루그만은 1백권이 넘는 책과 수많은 글을 저술해 왔다.

것"이라고 말했다.

월터 브루그만은 컬럼비아 신학교에서 다작의 사역을 통해 교회와 세상의 유익을 위해 성경 연구를 독보적으로 재정립했다. 수많은 학생과 목회자들이 브루그만의 가르침과 저술을 통해 변화되었다.

월터 브루그만은 연합 그리스도 교회(United Church of Christ)에서 안수를 받았지만, 목회직을 맡은 적은 없다. 하지만 그는 설교자이자 강사로서 높은 수요를 누렸으며, 성경에 깊이 뿌리 내리면서도 사회, 정치, 경제 현실을 거칠없이 다루는 설교로 유명했다.

그는 소비주의, 민족주의, 군국주의에 대해 종종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했는데, 이는 당파적 견해 때문이 아니라 신앙이 불의에 맞서야 한다는 예언적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월터 브루그만은 은퇴 후에도 기독교 사상에 있어 다작의 목소리를 내며 만년에도 에세이, 성찰, 강연을 꾸준히 했다.

그는 목회자들과 학생들을 멘토링했고, 미국 UMC(United Church of Christ) 모임에도 꾸준히 참석했다. 유족은 아내와 아들 2명이 있다.

이미경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해변서 2만 6천여 명 동시 침례… 사상 최대 규모



©CBN뉴스 보도화면 캡처

미를 더했다.
이 행사는 참석자들에게 단순한 기념비나 이정표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각자의 영적 여정에서 깊은 변화를 경험한 이들은, 그날의 침례를 매우 개인적이고 감동적인 순간으로 기억했다.

한 참가자인 가브리엘(Gabriel)은 "저는 중동에서 저지른 활동으로 죽거나 감옥에 있을 수도 있었다. 어머니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침례를 받은 순간의 깊은 감격을 나눴다.

형과 함께 침례를 받은 호르헤 곤잘레스(Jorge Gonzalez)는 "하나님께서 제 모든 마음의 끈을 잡아당기셨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마침내 예수님을 제 구주로 영접했다. 그 순간이 바로 완벽한 기회였고, 삶의 전환점이 됐다"고 했다.

자원봉사자들도 그날의 감동적 분위기 속에서 큰 영감을 받았다. 캠페인을 섭진 자원봉사자 알리사 서클(Aliisa Circle)은 "가장 멋진 부분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마크 프랜시 목사는 이번 행사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며,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 해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구 끝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미국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 92세로 사망



월터 브루그만.

현대의 가장 존경받는 성서학자 중 한 명이자 미국 신학계의 예언적 목소리였던 월터 브루그만(Walter Brueggemann)이 9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영국 크리스천트레이디(CT)에 따르면, 그는 6월 5일(이하 현지시간) 미시간주에 있는 자택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60년이 넘는 뛰어난 경력 동안 브루그만은 1백권이 넘는 책과 수많은 글을 저술해 왔다.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천 비지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D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0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원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5
E-Mail: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 것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일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수비조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센터메디컬, '우울증과 정신 건강' 세미나

시니어 전문 센터메디컬그룹이 오렌지카운티 수정아파트에서 '우울증과 정신건강'을 주제로 건강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세미나는 센터메디컬클리닉 고제득 전문의가 진행했으며, 참석자들의 활발한 질문과 토론이 이어져 시니어들의 높은 관심과 필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우울증에 관한 설명과 극복 방법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참석자들은 "한국어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 큰 위로가 됐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고제득 정신과 전문의가 진행했다. 고 전문의는 UC Irvine과 Saint Louis University에서 M.D.와 Ph.D. 학위를 취득했으며, 하버드대학교에서 정신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했다. 또한 고제득 정신과 전문의는 오렌지카운티에서 한국어 상담이 가능한 유일한 정신과 전문의로, 한인 시니어 맞춤형 전문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우울증에 대한 깊



센터메디컬클리닉 세미나. ©기독일보

이 있는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이 길게 이어져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한국어로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어 큰 위로가 되었다"는 반응도 다수였다.

세미나 장소인 수정아파트는 가든그로브 시니어 순환버스 노선 중 한 곳으로, 교통 편의를 높여 더 많은 시니어들이 쉽게 참여 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메디컬그룹은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지역 사회 시니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세미나를 꾸준히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메디컬그룹: (888) 847-30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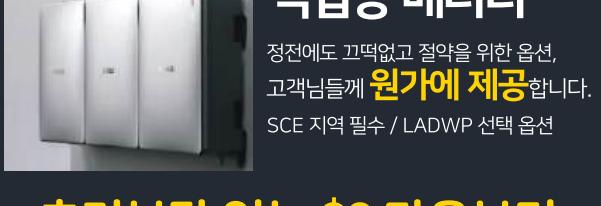
월 · 화 · 금: 가든그로브점 (714) 583-8569

수요일: 플라튼점 (714) 519-3024

목요일: 로렌하이츠점 (626) 363-4661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전기세 50~90% 절감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www.btssolardesign.com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고객님들께 드리는 서비스 약속



최고의 서비스

잘 훈련된 프로페셔널 팀이
최고의 제품을 사용하여 설치해 드립니다.



최고의 워런티

고객님의 시스템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업계 최장 25년 워런티를 보장합니다.



최고의 제안가격

타사대비 25-40%
저렴한 가격으로 제안 드립니다.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세요.

1. 최신 전기빌을 준비해 주세요.

2. 전기빌 1~4 페이지를 사진 찍으신 후 문자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3. 확인 후 고객님께 별도 안내 드립니다.

김한요 칼럼

말씀이 들리는 복



김 한 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전화를 합니다. 셀폰도 전화라기 보다는 눈으로 보는 컴퓨터로 바뀐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책이나 신문도 이제는 영상뉴스로 대신하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디지털에 지친 현대인은 아날로그로 돌아가는 몸부림을 치곤 합니다. 요즘 일부러 셀폰을 두고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우리도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복잡한 세상을 떠나 자연으로 들어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소위 TMI(too much information)로 폭탄을 맞은 듯한 충혈된 상황에서 잠시라도 눈을 감고 숨이 우거진 산 속에서 쉬고 싶을 때 조용히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마 17:5) 성경은 ‘들으라’ 말씀

합니다. 믿음을 갖는 방법도 어쩌면 ‘보라’가 아니라, ‘들으라’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롬 10:17)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10) 말씀합니다. 그래서 때론 눈을 감고 귀를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 있는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계 3:22) 의외로 성경은 먼저 들을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여, 믿지 못하겠다고 했을 때,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네 손을 네 옆구리에 넣어보라” 하십니다. 그때 도마는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 이시니이다”고 백합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들은 복되도다”(요 20:29)입니다. 요즘 말씀이 들리시나요? 혹시 여기저기서 여러분의 시야를 훈집하게 하는 TMI로 은혜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분은 안 계신가요? 주일 설교 말씀이나, 예배 시간에 관심이 없으면 눈을 감고 귀를 열어야 할 때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고후 5:7)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고후 4:18)

눈을 감읍시다. 귀를 쫑긋 여십시오. 주의 말씀이 들려야 다시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옛날에 들렸던 경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리는 말씀으로 우리는 삽니다. 기도의 눈을 감으면, 주의 말씀이 들립니다.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큼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라디오로 백번 듣는 것보다 TV로 한번 보는 것이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전화도 화상

뇌치유상담

사회적 뇌, 사회적 연접으로 신경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손 매 남 박사
한국상담개발원 원장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다. 서로의 얼굴 표정과 몸짓 그리고 시선 접촉과 같은 복잡한 사회적 정보가 우리의 감정과 연관시켜 애착 도식을 형성한다. 또한 안와내측 전전두피질은 감정적 반응을 중재하며,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분지의 활성화를 조절하고 둘 사이에 균형을 맞추어 준다.

사회적 뇌는 사회적 연접으로 신경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감각기관, 즉 피부 접촉이나 냄새, 시각 및 소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하며 생존하는 것이다. 미소를 짓거나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할 때도 감각기관을 통해 받아들여서 뇌 속에서 전기 화학적 자극으로 전달된다. 이러한 신호는 새로운 행동을 자극하며 새로운 행동은 사회적 연접으로 다시 메시지를 되돌려 준다. 이와 같은 사회적 연접을 통해 신경 활성화가 일어나 아이는 자신의 신체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양육자에게 가까이 머무르게 된다.

사회적 뇌는 감정적 조율을 통해 형성된다. 엄마와 신생아 간의 감정적인 조율은 신경망을 형성하게 하고 통합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 아이의 자기조절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신생아의 감정적 조율은 아이를 쓰다듬어 준다든가, 껴안아 주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생후부터 2년 동안 사회적 뇌의 형성은 부모와 아이의 오른쪽 대뇌 반구 사이의 조율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회적 뇌의 오른쪽 대뇌 반구에 편향된 회로는 태어날 때부터 작동되며, 생후 첫 2년 동안이 민감한 시기이다.

사회적 뇌의 형성은 모성적 관심과 양육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어린 시절의 모성적 관심과 양육은 사회적 뇌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어린 시절에 대인관계가 무섭고 학대적

일 때 사회적 뇌나 감정적 회로의 형성에 크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 모성적 관심 행동이 낮을 때 아이는 더 두려워하고 더 부정적이며 우측에 치우친 전두엽 활성이 일어난다. 이러한 현상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각성과 연관되어 있다. 또 모성과 접촉이 차단된 아이의 뇌에서는 세로토닌의 수용체가 감소된다.

모성적 관심과 어린 시절의 모성박탈이 HPA 축의 활성화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모성적 행동은 부정적 상황을 만들어 자식에게 스트레스를 증가하도록 프로그래밍한다. 나중에 신체적 병리와 감정적 병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역시 상승하게 된다. 자살한 사람의 뇌에서는 뇌신경 건강 가소성에 관여하는 신경영양인자 수준이 떨어졌으며, 이런 결과는 어린 시절에 학대가 있었던 환경에서 자란 이들로 하여금 우울증이나 자살에 민감하도록 만든다.

어린 시절의 경험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프로그래밍화되어, 성장하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는 감정이나 인지, 행동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론적으로 엄마의 관심을 더 많이 받으면 건강하고, 병의 회복도 빠르며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뇌를 가진다는 것이다. 또한 빨리 배우고, 기억을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더 적게 반응하기 때문에 각성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나 어려운 상태에서도 학습 능력이 더 양호하다. 이들은 코르티솔의 손상 효과에 영향을 덜 받는다. 그래서 더 많이 관심을 받은 여성의 긍정적 모습을 자신의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다.

어린 시절 모성 분리(박탈)는 뇌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어린 시절에 엄마와 오랫동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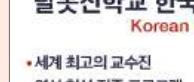
떨어져 사는 경우(분리의 경험)나 엄마의 우울증으로 모성 박탈을 경험한 사람들, 즉 모성 분리를 경험한 사람들은 신경 성장과 뇌의 가소성에 영향을 받는데, 신경세포와 아교세포가 많이 사망하고 배 측 해마에서 아교세포의 밀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또한 모성 분리는 HPA 활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청색반점에 있는 GABA 수용체가 감소하고 불안 두려움 및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증가한다. 그리고 중독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며 탐색 활동의 감소, 새로운 것에 대한 회피가 증가한다. 중요한 것은 유전자 발현이 감소하고 약한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더 많은 코르티솔을 분비하며, 놀랄반응과 놀람에 의해 유발된 소리가 증가한다.

모성적 관심은 후생적 유전자를 발현한다. 특히 모성행동의 양에 따라 900개 이상의 유전자가 다르게 발현되었으며 후생적 발현에 대한 유전자가 발견되었다. 흥미롭기도 40세 이후에 출산한 여성은 100세까지 살 확률이 거의 4배 정도 더 높다. 이것은 대개 출산과 관련된 호르몬의 보호적 성향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런 수명 연장은 부분적으로는 양육에 연관된 광범위한 생물학적 과정과 심리적 과정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건강을 증진시키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후생적 과정과 생화학적 과정을 통해 뇌와 신체에 자극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모성의 관심이 아이에게 후생적 요소를 촉발시키는데, 아이를 돌보는 것도 역시 양육자의 유전자를 발현시켜 변화를 준다. 어린 시절의 양육은 사회적 뇌나 감정적 뇌의 회로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대인관계가 무섭고 학대받을 때 뇌는 그러한 불행한 상황에 적응하도록 한다.

2025 미주기독대학박람회



신입생 모집

탈북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설립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북” 검색

유튜브: “탈북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5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 기독교대학(BA),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입학 후 미국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el(626)227-3454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for the Church

Midwestern Theological Seminary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회(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5001 North Oak Tra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ts.edu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 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금은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 최첨단 학술적인 온 오프라인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온캠퍸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유아교육, 경영사학, 비영리단체사학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 전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석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 (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 한국부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성립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info@evangelia.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Universit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회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is.org

학교주소 | 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 aurahello@gmail.com

전화 | 508-826-5145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Plaza Center, 1000 N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We Bridge 교회

<p>Angel's Church</p> <p>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15 새벽기도 새벽 5:30 255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2 T. (323)485-8787</p> 	<p>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p> <p>주일예배 오전 10:00 화요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전 10:00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T. (510)390-5456</p> 	<p>His Presbyterian Church</p> <p>주일예배 오후 12:00 교육부예배 오후 12:00 목요예배 오후 7: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30 4037 Lehman R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18-6611 www.Hisch.org</p> 	
<p>LA사랑의 동산교회</p> <p>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목요증보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새벽 6:00(월~토) 2865 W. 7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63-9899</p> 	<p>LA하나교회</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1503 Crenshaw Bl, Los Angeles, CA 90019 T. (213)500-2047</p> 	<p>Metanoia Church of Southbay</p> <p>주일예배 오전 11:00 18051 Crenshaw Blvd., Suit I, Torrance, CA 90504 T. (213)800-3120</p> 	<p>New Start Community Church</p> <p>주일예배 오전 10:30 7765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336-0520</p> 
<p>Only One Church</p> <p>주일예배 오전 10:00 성경공부 및 기도회 금요일 오후 7:30 https://www.facebook.com/chkh069 1525 Glenoaks Blvd, San Fernando, CA 91340 T. (469)289-8781 카카오 ID : chkh0810</p> 	<p>The Well Church</p> <p>주일예배 오후 2:00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562)410-9225</p> 	<p>In Christ Christian Church</p> <p>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213)422-6388</p> 	<p>가스펠교회</p> <p>주일예배/EM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목) 오후 7:00 셀모임(금) 오후 7: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1520 La Mirada Blvd, La Mirada, CA 90638 T. (657)253-8561 www.thegospelchurch.net</p> 
<p>굿프렌즈교회</p> <p>주일예배 오전 11:00 기도회(주일) 오후 3:00 5721 Lincoln Ave #K, Cypress, CA 90630 T. (714)852-8485</p> 	<p>남가주늘사랑교회</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1650 Avenida Selva, Fullerton, CA 92833 T. (714)482-5466</p> 	<p>남가주 어노인팅교회</p> <p>말씀과 친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후 10:30 새벽기도회 오후 5:30(화~금), 6:30(토) 수요상경공부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7:30 1455 Crenshaw Blvd Suite 205, Torrance, CA 90501 T. (213)800-3651 www.anointingchurch.org</p> 	<p>남가주예수사랑교회</p> <p>주일예배 EM 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후 10:00 금요구성팀구 오후 6:00 16113 S. Denker Ave, Gardena, CA 90247 T. (310)702-7571</p> 
<p>남가주은혜선교교회</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300 Vallejo Dr, Glendale, CA 91206 T. (310)713-3006</p> 	<p>놀워장로교회</p> <p>주일예배 수요성령집회 오전 11:00 토요 비전세례기도회 저녁 7:00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 (213)598-6878</p> 	<p>늘새론교회</p> <p>주일예배 청년부예배 오전 9:30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T. (714)453-8829 dmsejrkcd@hanmail.net</p> 	<p>더섬기는교회</p> <p>주일예배 어르신예배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3:00 605 S Palm St #H, La Habra, CA 90631 T. (909)975-1260 jacobkim1318@gmail.com</p> 
<p>랜초한인교회</p> <p>주일예배 낮 12:00 수요TEE성경공부 오전 10:00 31300 Rancho Community Way, Temecula, CA 92592 T. (714)337-8096 http://rancho.kr</p> 	<p>Acts Global Church</p> <p>주일예배 오전 12:50 교회학교 & 유스예배 주일 오후 12:50 수요나눔 교역자 오전 9:30 수요증보기도 오후 8:30 15 Orange Tree, Irvine, CA 92618 T. (714)886-7287</p> 	<p>리뉴얼새힘교회</p> <p>주일예배 오전 11:00 1636 W 8th St. #315, Los Angeles, CA 90017 T. (213)509-5360</p> 	<p>말씀위의교회</p> <p>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후 11:00 주일학교 아침 6:30(화~금) 종보기도회 오후 2: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화~금 오후 5:30 / 오후 6:00 3579 Arlington Ave, #500, Riverside, CA 92506 T. (909)247-7355</p> 
<p>방주교회</p> <p>주일예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 1343 W. Valencia Dr. #G, Fullerton, CA 92833 T. (714)222-8746</p> 	<p>버몬한인교회</p> <p>주일예배 오후 12:00 새벽기도회 오전 8:00 토요아침기도회 오전 8:00 702 Euclid Ave., Beaumont, CA 92223 T. (909)899-7922 www.beaumontkoreanchurch.com</p> 	<p>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p> <p>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예배 오후 7:00 토요새벽 오전 5:30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472-5979</p> 	<p>브림장로교회</p> <p>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후 11:00 주일학교 아침 6:30(화~금) 종보기도회 오후 2: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화~금 오후 5:30 / 오후 6:00 3561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76-5331</p> 
<p>생명과사랑의교회</p> <p>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3431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04-3004</p> 	<p>생명의길교회</p> <p>주일예배 오전 11:30 1201 Dorothy Ln, Fullerton, CA 92831 T. (657)252-0858</p> 	<p>생명의바람교회</p> <p>주일예배 오전 11:10 12420 Mar Vista St, Whittier, CA 90602 T. (714)683-9894 windoflife@gmail.com</p> 	<p>소리엘교회</p> <p>주일예배 오후 1:00 성경공부 평일 저녁 6:30 12440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T. (213)290-8129</p> 
<p>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p> <p>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2666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626)679-2115</p> 	<p>성암교회</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저녁기도회 오전 8: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6:30 2551 Beverly Blvd, #D, Los Angeles, CA 90057 T. (213)220-6421</p> 	<p>예심교회</p> <p>주일예배 오전 11:30 성경공부 주일 이침기도회(온라인) 아침기도회(온라인) 오전 7:00(화~토) 기도모임 오전 11:00(화) 7342 Orangethera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 (562)315-6543</p> 	<p>원웨이침례교회</p> <p>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금요예배 & Youth 오후 1:30 금요예배 저녁 8:00 청년부 수요일 저녁 8:00 수요일 새벽 5:30 30분 6015 Palm St, La Habra, CA 90631 T. (213)249-5017</p> 
<p>은혜가샘솟는교회</p> <p>주일예배 오후 12:00 수요기도회 오후 8: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10949 Zelzah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703-2292</p> 	<p>은혜샘교회</p> <p>주일예배 어린이 & Youth 오전 11:45 오전 11:45 5471 W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T. (714)337-0551</p> 	<p>주님의숲교회</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전 9:00 1221 Candlewood Dr, Fullerton, CA 92833 T. (562)567-4573</p> 	<p>커넥션교회</p> <p>주일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3:00 금요youth모임 오후 7:00 목요보기도회 오전 10:00 114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5 T. (714)366-9263</p> 
<p>초대교회</p> <p>주일예배 1부 오전 10:30 New Start Mission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T. (818)434-1253</p> 	<p>카마리오열방교회</p> <p>주일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니눔 코미 모임 오후 6:00(월) 1369 Del Norte Rd, Camarillo, CA 93010 T. (805)419-6043</p> 	<p>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p> <p>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성경공부 수요기도회 오전 7:30 오후 7:30 1101 E Ponderosa Dr, Camarillo, CA 93010 T. (213)700-3341 www.kfpc.com</p> 	<p>함께하는 주은혜교회</p> <p>주일예배 토요증보기도회 오전 10:30 오전 6:00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T. (310)753-6169 tgodsgc@gmail.com</p> 
<p>크레센타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p> <p>주일예배 및 성경공부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2700 Montrose Avenue, Montrose, CA 91030 T. (323)774-2992</p> 	<p>크로스교회</p> <p>주일예배 오후 1:00 3663 W 9th St, #110, Los Angeles, CA 90019 T. (626)342-4366</p> 	<p>하늘기쁨의교회</p> <p>주일예배 1부 오전 11:00(요정시)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주일예배 3부 저녁 11:00(요정시) 죽음예배 목요 오후 6:00(한어) / 금요 오후 8:00 (영어) 파워워십 2번째 목요 오후 8:00(한어) / 3번째 목요 오후 8:00(한어) 12104 Los Coyotes Ave, La Mirada, CA 90638 T. (213)215-0555</p> 	<p>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골전 12:27)</p> <p>Putin's signature is visible in the background of the bottom right box.</p>

■ 강준민 칼럼

숲이 변성하는 것은 어머니 나무 때문입니다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나나무”(Mother Tree)라고 부릅니다. 저자는 일생 숲을 연구하고 나무를 연구한 분입니다. 그녀는 숲이 진정으로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중심을 이루는 나무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나무가 “어머니 나무”입니다.

저자는 “어머니 나무는 광범위하고 복잡하게 연결된 네트워크의 중심 허브다. 어머니 나무는 다른 나무들, 특히 어린 나무들과 연약한 나무들에게 메시지와 자원을 전달한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숲과 같습니다. 혼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천하보다 소중한 한 분 한 분이 모여 교회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몸은 하나입니다. 하지만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숲에 어머니 나무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어머니 나무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키우고, 교회를 세운 분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나무 같은 분들입니다. 어머니 나무의 역할을 통해 아름다운 숲을 형성하는 소중한 지혜를 배웁니다.

첫째, 어머니 나무는 뿌리를 돌봅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뿌리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뿌리의 건강이 나무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어머니 나무는 광합성으로 얻은 양분, 물, 미량 원소를 균사체를 통해 주변 나무들에게 전달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먼저 광합성이란

무엇일까요? 광합성(光合成)은 나무가 햇빛과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 그리고 뿌리로 흡수한 물을 통해 식물이 자기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식물은 영양분을 만들고 그 남는 것은 산소로 우리에게 나눠 줍니다. 또한 균사체(菌絲體, mycelium)란 버섯이나 곰팡이의 뿌리처럼 생긴 실타래입니다. 땅속 깊숙이 퍼져 있어 나무들의 뿌리와 뿌리를 연결해 주는 숲의 비밀 통로입니다. 균사체는 서로 양분을 주고 받습니다. 또한 병이 오면 경고 신호를 전달해 줍니다. 균사체는 보이지 않는 사랑과 친유와 돌봄의 연결망입니다. 마치 성령님의 역사처럼, 보이지 않지만 교회를 살리는 연결망입니다.

고,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게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견고한 교회가 됩니다.

셋째, 어머니 나무는 지혜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어머니 나무는 자신이 겪은 환경 변화, 병해충 공격,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정보를 다른 나무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어머니 나무가 가르쳐 주는 지혜를 통해 어린 나무들이 미리 대비하고, 전체 숲이 함께 반응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공동체입니다. 어른들이 다음 세대에게 지혜를 전수해 줄 때 다음 세대는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넷째, 어머니 나무는 자신을 내어줌으로 어린 나무를 살립니다. 어머니 나무는 죽기 직전에 남은 양분을 기꺼이 모두 내어줍니다. 심지어 뿌리까지도 어린 나무들에게 공유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처럼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요 12:24).

숲이 어머니 나무 덕분에 유지되듯, 교회와 가정도 중보 기도와 눈물의 헌신 위에 세워집니다. 어머니 나무의 숨은 뿌리처럼, 은밀한 헌신으로 교회를 세워 주시는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고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 헌신하신 어른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 자라난 우리 모두가 이제는 누군가의 어머니 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숲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거대한 숲은 오랜 세월을 거쳐 형성됩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작은 씨앗 속에는 거대한 숲이 담겨 있습니다. 작은 씨앗으로 시작된 나무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아름다운 숲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연한 기회에 숲에 대해 배웠습니다. 숲 속에 담긴 비밀을 배웠습니다. 숲을 통해 인생을 배우고,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숲은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숲은 많은 나무들이 함께 모여 삽니다. 숲의 아름다운 모습 속에는 보이지 않는 숨은 노력이 함께 합니다. 땅 속에 감춰진 나무의 뿌리들이 서로 연결하며 함께 살아갑니다.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갑니다. 숲을 살리고 키우는 나무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산림 생태학자 수잔 시마드는 숲을 키우고 살리는 나무를 “어머

■ 강태광 칼럼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강 태 광 목사
월드쉐어 USA 대표

은 분노하셨을 아버님이었다. 평소에도 무서운 아버지를 사고 치고 만나려니 엄두가 안 났다. 대문에 들어서는데 온몸이 굳어지고 숨이 가빴다. 그때 아버님께서 “수고했다! 들어가 쉬어라!”라고 하셨다. 아버님의 따뜻한 한마디로 젊은이는 용기를 냈고, 지금은 목회자가 되었다.

필자의 아버지도 무서운 분이셨다. 늘 두렵고 찬 바람이 쌩쌩 불었다. 함께 있으면 그냥 불편했다. 애석하게도 아버님 소천 후에 아버지 마음의 온기를 느꼈다. 어린 시절에는 무서웠고, 장성해서는 불편했던 아버지가 요즘은 그립다. 그리고 아버지 마음을 알아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한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 매주 토요일이 되면 정성스럽게 주일 예배를 준비하셨다. 주일 아침이면 조바심을 내시며 교회를 향하셨고 아들의 설교를 즐거이 들으시던 아버님 모습이 생생하다. 매주 모든 성도 중에 아버님이 가장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 주일 저녁 식사 시간이면 아버님은 어

김없이 아들 설교에 받은 은혜를 나눠 주셨다.

매주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은혜를 나눠 주시는 아버님이 민망하고 불편했었다. 나중에 어머니가 전해 주신 이야기는 아버님께서 아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매주 은혜를 사모하셨고, 받은 은혜를 나눠 주셨단다. 아들을 격려하기 위해 기필코 설교에 은혜를 받으셨고, 받은 은혜를 애써 나눠 주신 아버님 마음이 애잔하다. 그날에 무심했던 불효가 새삼 죄송하다.

아들과 딸은 동부에 살고, 우리 부부는 남가주에 산다. 동부에 있는 녀석들이 거의 매일 전화한다. 특히 아들은 매일 출근길에 전화한다. 매일 통화하며 하루 일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며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낀다. 나도 이런 행복을 아버님께 드린 적이 있을까? 자신이 없다.

PEMF 와 Tera Hertz 테라헤르츠가 만나다! 테라 P-90

세계 최초의 최첨단 신기술을 이용한 30분의 기적!

무료체험하러 오세요!



자연요법, 대체 의학, 예방 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 전문가들의 추천



우주인에게 사용되는 PEMF, 생명의 빛 테라헤르츠파로 생성된 올리라이프 테라P-90 PEMF(지구자기장) + THz(빛 파장) + Earthing (땅 에너지) 가 결합된 제품

1. PEMF 전자기 펄스를 발생, 발바닥에서 온 몸으로 열에너지 전달 혈액순환촉진에 도움
2. 테라헤르츠파가 피부에 침투하여 인체의 미세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도움
3. 땅에 어씽한 것처럼 전자를 유입하여 활성산소를 중화하는데 도움을 줌

PEMF란?

지구자기장으로 NASA에서 우주인의 건강을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기도 합니다.

우주에서 장기간 머무는 비행사들은 지구자기장의 영향권 밖에 있기 때문에 뼈와 근육의 손실이 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주비행사들의 회복을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10여년 전만해도 지구로 귀환하는 우주비행사들은 90일간 PEMF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주에서 머무는 동안 근육손실과 뼈의 약화 등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PEMF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테라P-90의 의미도 최소한 90일간의 PEMF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테라 P-90을 30분 사용시 얻을 수 있는 동일한 성과

- | | | |
|--------------------|-----------------|--------------------|
| - 2시간 운동 성과 (근육활성) | - 부황 20회 (혈액순환) | - 훈육 1시간 |
| - 뜰 10회 (체온상승) | - 마사지 30회 | - 피부 스켈링 60회 (리프팅) |

테라 P90의 효과

- | | | |
|------------------|--------------------|-----------------|
| - 세포에너지 생성에 도움 | - 통증과 염증에 도움 | - 피로에 도움 |
| - 혈액순환과 산소공급에 도움 | - 면역건강 보조 | - 안티 에이징에 도움 |
| - 신진대사에 도움 | - 뇌건강과 인지능력 증가에 도움 | - 시력향상에 도움 |
| - 독소배출(림프)에 도움 | - 우울증/스트레스에 도움 | - 폐와 심장기능강화에 도움 |
| - 수면장애에 도움 | - 지방연소에 도움 | |

FDA, SGS, OPMS, ISO 세계적으로 특허 및 승인 받은 제품 158개국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 하나의 디바이스로 온가족이 함께!

테라헤르츠와 PEMF의 시너지, 최첨단 건강 혁신! 두 가지 혁신 기술의 만남으로 완벽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세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체험수기

“저는 한의사로서 다양한 치료법을 경험해왔습니다. 테라 P-90를 사용해본 결과, 정말 놀라운 효과를 느꼈습니다. 이 기기는 깊은 조직까지 침투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뻐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들에게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테라 P-90는 비침습적이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환자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 Y*** 한의사

“정형외과에서 테라 P-90를 도입한 이후,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수술 후 회복과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전자기장이 깊은 조직에 작용하여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며, 치료 효과를 빠르게 증진시킵니다. 실제로 환자들이 치료 후 더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테라 P-90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 J**** 정형외과 의사

“테라 P-90은 물리치료에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뻐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제 환자들이 테라 P-90를 사용한 후, 통증이 줄어들고 운동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치료 세션에 테라 P-90를 포함시키는 것은 환자들의 재활 과정을 크게 개선시키는 방법입니다.” - M** 물리치료사

“피부과에서 테라 P-90를 사용하여 염증성 피부 질환과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자기장이 피부 깊숙이 작용하여 염증을 완화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시킵니다. 환자들의 피부 상태가 개선되고, 치료 후 회복 속도가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한 혁신적인 치료 도구로 테라 P-90을 추천합니다.” - L** 피부과 의사

grace.olylifeglobal.com 웹사이트 주문 후 2주 후 물건도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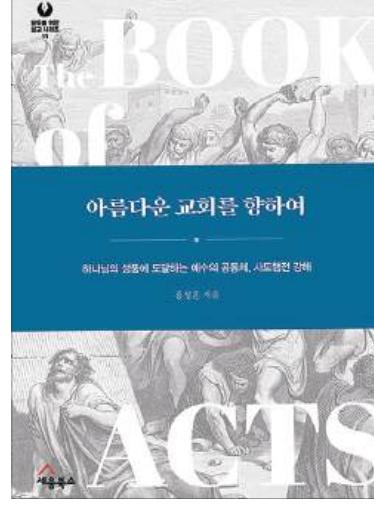
문의 213-434-1170 무료체험 (오시기전 예약필수 월~목 : 오전 11시 ~ 오후 2시)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 건강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건강과 비즈니스 기회를 원하시면 지금 연락주십시오.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는 예수의 공동체

사도행전: 하나님 이끄시는 교회의 모습과 그 아름다움



아름다운 교회를 향하여

홍성훈 | 세움북스 | 668쪽 | 43,000원

따뜻하면서도 예리하게
교회의 본질을 향한 사려
깊은 통찰로써 복음의 능력,
구원 그 이후 하나님의 사람,
교회 공동체의 역동성을
말하는 사도행전을
설교했다

그래서 본서는 문장에
군더더기가 없고, 논리성이
탁월하고, 시의적절한
예화가 있어 현장성 돋보인
다. 저자는 성경 본문에
대한 자연스러운 신앙적
질문들을 솔직담백하게
드러내어, 독자로 하여금
단순한 이해를 넘어
생각하게 만든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라면, 교회를 향한 관심이 많을 것이다. 교회에 모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성도들과 영적인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가족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통해 영적 공급을 받기를 원하고, 교회를 통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 희망한다.

『아름다운 교회를 향하여』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저자인 홍성훈 목사는 사도행전을 교회라는 주제로 살펴본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특징이 있으며,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를 설교했다.

홍성훈 목사는 독일로 유학 온 유학생들과 함께 한 카셀 아름다운교회에서 목회하며,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회복을 통해, 유학생들도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했음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부록으로 실린 부임 설교와 고별 설교 제목이 '아름다운 교회를 향하여'다. 부임 설교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추구하는 사도행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설교했다면, 고별 설교에서는 부임 설교에서 말한 것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같은 본문과 같은 제목, 같은 내용으로 설교했다. 그리고 목회하는 과정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출발과 과정,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과정을 복음주의적 관점으로 설교했다.

『아름다운 교회를 향하여』라는 설교집을 읽어가면서, 과거 한스 퀸이 쓴 『교회란 무엇인가』를 읽으면서 느꼈던 뜨거운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아름다운 교회를 향하여』를 읽으면서 느꼈던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홍성훈 목사의 논리적 필력을 느낄 수 있었다. 설교는 곧 글쓰기에서부터 출발한다. 물론 성경

에 대한 풍성한 지식, 신학적 사고, 기도를 통한 영성이 설교자에게 중요하지만, 영성과 지식을 글로 써는 리적으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올바른 설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글쓰기(수사학)는 사고하고 그 결과를 글로 표현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글쓰는 이에게 생각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홍 목사의 글쓰기는 매우 논리적이고, 변증법적이며, 독자에게 글을 통해 설득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설교집 『아름다운 교회를 향하여』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주해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타난 역사적 배경과 성경 속 상황을 설득력 있게 분석하고, 교회라는 주제를 1장부터 28장까지 끊임없이 질문의 형태로 독자들에게 제시한다. 이를 통해 설교자가 제시하는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한다. 또 문장 가운데 철학적인 질문을 넣음으로써 설교를 듣고 책을 읽는 독자들이 '나는 누구이고, 나는 누구를 따라야 하며,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고 있는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것은 설교자의 필력에 의한 것으로, 홍성훈 목사의 끊임없는 독서와 기도, 인문학적 지식에서 오는 결과물이다. 둘째, 교회라는 주제가 끊임없이 제시되고 있다.

저자는 서문에서 사도행전 연속 설교를 통해 자신이 추구하려는 바를 분명히 언급했다. 그것은 교회의 역동성을 통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자녀와 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가져야 할 태도에 관한 것이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49편의 설교 가운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구약 성경 속 예언된 '하나님 말씀의 성취'이다. 이것은 개인의 교회론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뤄진 결과물임을 강조한 것이다.

또 성령에 대한 강조를 통해 현대 교회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성령

관을 비판한다. 성령은 삼위 하나님과의 동격인 본질이며, 은사보다 성령의 본질이 중요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위한 사역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결국 교회의 본질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이다. 이런 원리가 오늘날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도 강조한다. 교회에서 혹은 어떤 목회자에 대해서 이적이 일어난다면 교회와 목회자에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그 이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한다는 점은 오늘날 교회가 주목해야 한다.

특히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현대 교회 환경은 교회를 내 생각과 구미에 맞춰 찾아가는 음식점에 비유하고 있다. 즉 오늘날 세대는 자기 생각과 관심에 맞는 설교를 선택적으로 찾아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희석되고, 청중에 맞는 설교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셋째, 본문과 적용이 분명하다.

성경의 1차 독자는 현대인이 아니다. 길게는 수천 년 전 사람들이 직면한 문제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 말씀이었다. 그러므로 성경 1차 독자들에게 전해진 말씀을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수천 년 전 말씀과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긴 시간적 격차를 본문에서 말하는 것을 질문함으로써 해결한다.

31번째 설교인 '관점이 분명한 신자와 교회'에서 홍 목사는 자유와 순종에 관한 문제를 설교했다. 여기서 유대교의 전통인 할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것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할 때 효과적으로 일하는 것에 대한 배려라고 했다. 그렇다면 바울은 율법의 전통적 해석을 바울이 가진 재량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지 질문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바울은 스스로 자유의 제한을 두었고,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는 한계가 분명함을 강조했다. 그런데 한계가 분명한 자유를 언급할 때 던진 질문은, 교회가 얼마만큼의 자유를 갖고 있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었다. 이 질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해답이 '자유의 제한'이었다. 설교자는 청중에서 설교할 때 단순히 성경적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이 직접 고민하고 생각하며, 급변하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를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이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된다.

서상진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영희 권사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송영 토크 셀럽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상담심리학 프로그램 디렉터 채용공고

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는 상담심리학 석사(Master of Arts in Counseling Psychology) 과정과 전문코칭학 석사(Master of Arts in Professional Coaching) 과정을 담당할 디렉터 교수님을 모집합니다.

■ “자격 요건”

상담심리학 박사학위 (Ph.D. 또는 Psy.D.)

기독교 분야 석사학위 (M.Div., 신학석사 등)

한국어 및 스페인어 강의 가능

관련 분야 교수 또는 디렉터 경력 5년 이상

미국 내 취업 자격 보유

관련 전문면허 소지자 우대

■ “근무 조건”

파트타임(주 3일), 필요 시 폴타임 협의 가능

급여: 경력 및 역량에 따라 결정

■ “제출 서류”

국·영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강의계획서 (한글, 스페인어)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추천서 (목회자 1부, 교수 1부)

신분증 사본

■ “접수 마감” 2025년 7월 11일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제출처” Steve Hong (stevehong@ptsa.edu)



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

박^우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본회퍼: 목사.스파이.암살자> (3)

나치에 '복음적으로' 저항할 순 없었을까?

본회퍼, 루터 신학적 개념 계승

정치적 입장에선 루터와 결별

루터, 무장투쟁이나 혁명 불참

농민전쟁 과격성에 적극 반대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가 모범으로 삼았던 루터는 폭력이 수반되는 혁명을 수긍했는가?

나치에 저항한 목회자이자 정치적 순교자였던 디트리히 본회퍼는 루터교 목회자였다. 단지 교단만 루터교 소속이었던 것이 아니라, 마르틴 루터의 신학에 정통한 신학자였다.

신학적 사상의 초기와 중기, 그리고 후기를 막론하고 그의 저서 전반에서 본회퍼는 주기적으로 루터의 글과 설교를 인용하고 루터가 남긴 신학적 개념들을 계승한다.

그러나 반나치 무장투쟁과 히틀러 암살계획에 가담하던 시기의 본회퍼는 정치적 견해 측면에서 루터와는 완전하게 결별한 모습을 보인다. 루터는 살아생전 단 한 차례도 세속 정권에 대한 무장투쟁이나 혁명을 인정하지 않았다. 신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불의가 있다면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의 논리로 투쟁했을 뿐, 절대 물리적 수단을 동원한 혁명을 지지하지 않았다.

루터의 이러한 입장은 지금까지도 숱한 신학 연구자들 사이에 논란거리로 회자된다. 대부분 신학자들은 루터가 아직 군주나 귀족 중심의 전근대적 정치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해석하거나, 과도하게 교회 내부 사안에만 관심을 가져 교회의 사회적 책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석한다.

그런데 이런 해석들은 대부분 시민혁명의 역사를 배우며 현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자라난 이들의 정치관을 반영한 해석이다.

도대체 루터가 반정부 무장투쟁에 대해

어떤 소견을 남겼길래, 그의 정치관이 전근대의 시대적 한계에 묶여 있었다는 비판적 평가가 주를 이룰까?

1524년부터 1526년까지 신성로마제국 여러 지역(오늘날 독일 남부와 오스트리아 지역)에서는 '독일 농민전쟁'이라는 대규모 농민혁명이 일어났다.

이 농민혁명의 이유는 딱히 하나를 지목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했는데, 일단 농노에 가까운 열악한 경제적·사회적 처지에 신음 하던 농민들이 종교개혁이라는 격변을 마주하며 사회체제 변화의 기회를 노린 것이 주된 원인이다.

여기에서 더해 농민들의 암울한 처지에 연민을 갖고 공감하던 개혁 성향 성직자들이 농민들과 힘을 합쳐 당대 독일 영주이자 대지주로서 기득권층을 이루던 공후(Fürst)들의 폭정을 무너뜨리려 한 것이 독일 농민전쟁의 주 동기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매우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평등과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숭고한 혁명으로 보이겠지만, 당시 루터는 자신 때문에 촉발된 종교개혁이 이렇게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악용되는 데 대해 크게 분노했다고 전해진다.

농민전쟁 발발 초기 루터는 약간이나마 농민들의 처지를 이해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봉기 양상이 과격해지자 농민들을 "도둑놈들"이라 부르며 공후들에게 그들의 광기를 엄히 다스릴 것을 권고했다.

본회퍼의 관점, 특히 검은 오케스트라 활동에 힘쓰던 시기 그의 관점으로 보면 루터의 이런 귀족친화적 입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실제로 본회퍼는 <윤리학>에서 루터 정교분리 사상의 '역사적' 의미를 본회퍼 자신의 시대에 맞는 '실존적' 의미로 재해석한다.

본회퍼는 하나님 나라와 세속 정권을 엄밀하게 분리하는 루터의 두 왕국 이론이 실



▲영화 <본회퍼: 목사.스파이.암살자>는 반나치 저항단체 '검은 오케스트라'에 소속되어 활동했던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의 생애에 관한 작품이다.

은 교회와 세속의 엄밀한 분리를 의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본회퍼는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 보였던 실제 행보를 통해 이를 논증한다. 루터는 면죄부 판매나 교황무류성이라는 교리적 논제에 관여된 심각한 부조리를 독일의 공후, 부르주아, 그리고 농민들에게 알리는 데 자신의 삶을 바쳤다는 것이다. 그의 사역은 교회와 세속이 합력해 인간의 죄성을 물리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회퍼는 교회와 세속의 논쟁적 관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성역처럼 분리돼 있던 교회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일어난 하나님과 세상의 화해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교회는 스스로를 세속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오히려 세속보다 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에 널리 퍼진 부조리와 죄악에 저항하는 숭고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이 루터가 교회와 세속을 분리해서 바라본 원래 의도라고 본회퍼는 해설한다.

이는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큰 고민거리로 안겨주는 사안이다. 현실에서 교회와 세속의 불가분적 관계를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루터와 본회퍼가 서로 전혀 다른 방향의 대응책을 알려준 사실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루터의 '두 왕국 이론'에 대한 본회퍼의 해석은 루터가 독일 농민전쟁 당시 농민군 측에 대해 보였던 태도를 생각해 보면, 루터의 본심을 적중한 해석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본회퍼는 시민혁명과 자유민주주의가 시대정신을 이룬 정치적 토양 위에서, 루터의 이론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했다. 교회와 세속이 논쟁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치적 정의에 대한 견해를 서로 나누고 협력하는데 대해 본회퍼는 그 순기능을 주목했다.

반면 루터는 교회의 논의를 세속의 영역

까지 확산시키면서 종교개혁이라는 결실을 맺었지만, 이는 원래 루터가 의도한 방향이 아니었으며, 그의 종교개혁 시도가 정치적·사회적 개혁으로까지 확산된 것은 당시 유럽 기독교 세계가 뿌리 깊은 정교일치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와 세속의 불가분성과 상호 관여를 적극 수용하는 본회퍼의 견해는 정치적·사회적 정의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공의를 새롭게 규정하는 대단히 '정치적인' 시도였다. 그리고 이것이 본회퍼의 견해를 루터의 정교분리 사상보다 훨씬 유명하고 인기 있게 만드는 주 요인이다.

시민혁명과 민주주의를 인류 진보의 궁극적 지향점이자 지고선으로 받들도록 교육하는 사회에서 자라난 이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정치적 선과 정의를 위해 교회의 헌신을 촉구하는 본회퍼의 사상이 암도적 매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반면 루터가 원래 고수하려던 엄격한 정교분리 원칙은 이런 사회적·문화적 배경 속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으로 취급되는 것이 당연하다.

영화 <본회퍼>는 이런 정치친화적 사회적·문화적 배경 가운데 '정치적' 신앙과 순교의 모범을 보여주는 영화다. 영화 자체는 분명 감동적이다.

그런데 정치적 신앙의 모범으로서 휴머니즘의 감동을 선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종교 개혁 전통을 이어받은 개신교적 신앙의 모범으로서 그리스도 중심적 감동을 선사하는 것인지, 적절히 분별할 필요는 있다.

본회퍼의 비극적 죽음은 매우 애석한 일이다. 그가 '실존적으로 해석된' 루터의 정치관이 아니라 '기독교적으로 해석된' 루터교 정치관을 이어받았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기반으로 나치의 불의에 '복음적으로' 저항한 자로서 교회에 더 온전한 모범을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영화 <본회퍼>는 이런 의미로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작품이다.

반면 루터는 교회의 논의를 세속의 영역



▲독일 농민전쟁 발발 지역. 오늘날 독일 남부와 오스트리아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핀터레스트 캡처

앞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컬러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컬라 전문점

헤어
컬라

\$40
부터
시작

*단, 컬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 웨ла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컬러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웨ла 제품으로 칼라한 살게 사용됩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편리한 위치-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AM ~ 7:00 PM 토요일 09:00 AM ~ 6:00 PM

Tel: 213-739-1022

“에잇, 모르겠다” 입을 연 순간… 뉴욕 지하철에서 복음이 울려퍼졌다

SNS 300만뷰 ‘전도 영상’의 주인공, 아비가일 류의 이야기

뉴욕 지하철에서 성령의 감동 따라 복음 전한 청년

SNS 릴스로 퍼진 전도 영상, 300만 뷰 넘기며 화제

인격적인 하나님의 진짜 사랑 깨닫고 ‘일상 전도자’로 변화

SNS 영상 하나로 3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된 대학생이 있다. 뉴욕 지하철 안에서 복음을 전한 영상 속 그녀, 아비가일 류(Abigail Ryu, 한국 이름 류지현)다. 연극영화와 음식학을 전공하며 신앙과 예술, 일상 속 복음을 자연스럽게 살아내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뉴욕대학교에서 연극영화 전공, 음식학 부전공을 하고 있는 아비가일 류입니다. 한국 이름은 류지현이고요. 한국에서 중학교까지 마치고 고등학교 시절 미국 유학을 1년 반 정도 했다가, 코로나로 다시 한국에 돌아와 국제학교를 졸업한 후 뉴욕대로 진학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뉴욕에서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 삶을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Q. 300만 뷰를 기록한 ‘지하철 전도 영상’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날 어떤 일이 있었나요?

사실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대학교에서 셀미팅(셀모임, 소그룹모임)을 마치고 말씀에 감동한 채로 집에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성령님께서 제게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라’는 마음을 주셨고, 처음엔 너무 망설였어요. ‘예수님, 저 못하겠어요’라고 여러 번 말한 것 같아요. 그 때 성령님께서 ‘안해도 돼, 하지만 너가 할 수 있음을 내가 알기에, 이 마음을 준거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잇 모르겠다’하고 입을 열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서 이 모든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임해요. 그냥 종교가 아닌, 그 끓을 수 없는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기 시작했을 때, 그 진리를 깨달아갈 때에, 그만큼의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Q. 처음 전도하는 자리에서의 멀림도 컸을 것 같습니다.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나같은 사람도 사용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면서, 이것이 진짜로 좋은 소식이라는 생각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냥 친구를 만날 때도, 수업을 갈 때에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알릴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고, 단순 종교가 아닌,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어졌어요. 또한, 많은 사람들 이 기독교는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나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기에 제가 하는 말과 행동에 힘이 있고, 저를 통해 하실 일이 작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 더 기쁠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생겼습니다.

Q. 주변의 반응은 어땠나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느냐’고 물어보셨어요. 하지만 저는 사실 굉장히 떨렸고, 용감하다기보다 ‘작은 순종’의 마음으로 나섰을 뿐이에요. 주님께서 그저 하라고 하셨으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믿음이었어요.

하는 걸 좋아했고, 뉴욕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음식은 부전공으로 삼을 만큼 좋아하고, 요즘 뉴욕의 음식 트렌드나 음식 문화에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Q. 유년기와 청소년기는 어땠나요?

한국에서 태어나 16살 중학교 졸업까지 한국에서 자랐습니다. 작은 마을 한 자리에서 줄곧 자랐어요. 집 앞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분수대에서 핫핑크 기타를 치며 노래했던 기억도 나오요. 중학교 때는 부모님이 바쁘셔서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외동딸로서 외로움도 커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어지는 여섯 명의 친구들이 제 인생의 큰 선물중 하나입니다.

그러던 중, 중학교 졸업 후 16살에 1년 반 정도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영어를 거의 못하는 상태에서, 가족이나 친구도 없이 혼자 유학길에 올랐기에, ‘진짜 하나님밖에 기댈 분이 없겠구나’ 싶어서 영어 익숙화를 떠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Q.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연극영화 전공자로서 작품 활동에 참여 중인 아비가일 류. ©아비가일 류

Q. 요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복음을 가장 먼저 듣고 싶어요. 지난해 뉴욕대에서 셀 미팅(셀모임, 소그룹)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사랑,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더 커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패션과 음식에도 관심이 많아요. 어릴 때부터 스타일링

모태신앙으로 자라, 항상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일요일은 물론 항상 교회에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아이들 돌보는게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점점 질문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다른 종교는 무엇



작은 순종으로 입을 연 청년, 뉴욕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한 아비가일 류의 영상은 SNS에서 3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됐다. ©Abigail Ryu 인스타그램

인지, 왜 나는 아직도 행복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질문이 엄청나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존감도 너무 낮았고, 하나님에 대체 어디서 어떻게 살아계신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성경에 답이 나와있다’라는 음성을 들은 것 같았어요. 한번도 직접 제 마음으로 열어본 적 없는 성경을, “그래 한번 다시 읽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요한복음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19살,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처음엔 저를 하고 이해되지 않았지만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대해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주님의 동행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2024년도 초반에 활영 일을 통해 만난 한 친구를 통해서였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고 그 이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Q. 한국의 젊은 크리스천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축하합니다! 왕 중의 왕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축하드려요. 이 시대, 세상의 소리와 질문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얼굴을 뵙고 ‘수고했다, 내 딸 내 아들아’라는 말을 듣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봐요! 사랑해요 여러분.

Q. 요즘 불들고 있는 성경 말씀과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가장 좋아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가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요즘 기도 제목은 두 가지 인데요, 먼저 한국의 청년 크리스천들이 종교에 대한 선입견을 깨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리고 뉴욕대학교 안에 대학생들을 위한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백선영 기자

YouTube 문선영의 머니토크

3년 정도 짧은데 복리로 받는 것도 있나요?

질문 안녕하세요 문선영씨, 저는 남편과 함께 아틀란타에 서 가족 제품 세공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60세입니다. 저희가 이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 9년째 되었는데요, 아직 은퇴할 계획은 없습니다. 비즈니스가 점차 잘 되어서 아마 앞으로 저희 생각에 딱 10년, 70세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기술직이라고 일이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일하는 아이를 2명을 두니까, 저희가 마무리 작업만 하면 되고 입소문으로 비싼 일감이 많아서 정말 괜찮은 비즈니스입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가 작년에 CD이자가 좋아서 웰스파고 뱅크에 넣었는데 이제 4월에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던 IRA도 만기가 됐다고 찾던지, 롤오버를 하던지, 다시 계약을 맺으라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문선영씨가 도와주시면 CD에 있는 돈을 찾고 IRA도 찾아서 함께 둑어서 이자를 좀 잘 받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IRA는 너무 이자가 안자라서 겨우 4,000불 정도 밖에 안자라서 이자 좀 좋은 곳에다가 함께 놓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선영씨 도와주실 수 있으시지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담과 플랜을 돋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남동생에 대한 애듯한 심정이 느껴지네요. 누나로써 많은 것을 도와

줄 수는 없지만, 남동생이 빚을 다 갚는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집더라도 한 채 사주고 싶다는 마음 제대로 접수 했습니다.

그 3년에 4.9%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10만 불을 3년에 집어넣어서 매년 4.9% 이자를 받게 된다면 첫 해에는 그 \$100,000

불이 \$104,900불로, 4.9%가 붙어서 2년차에는 \$110,040, 그리고 3년째에는 \$110,040에 4.9% 이자를 붙여서 \$115,432.06으로 자라게 됩니다.

3년 동안 4.9% 복리로 받은 돈이 \$15,432.66인데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삼년동안 그냥 처음부터 15,432 불을 모으기 위해서는 한 달에 428.66센트를 3년 동안 빠짐없이 계속 모았을 때 만 들어지는 돈입니다. 한 달에 \$428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엑스트라로 저축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되는 \$100,000를 이 MYGA 삼년짜리 4.9% 매년 보장되는 플랜을 하셨을 때 지금 우리 에스더님의 경우 남동생에게 빚을 다 갚고 나서 집에 다음 페이로 아주 훌륭하게 그나마 지킬 수 있는 돈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10만 불 현재 가지고 계신 곳을 그저 그냥 은행에 넣어놓게 되면 그대로 10만 불의 가치가 유지되지만 만약 이것을 마이가(MYGA)에 넣으시게 된다면, 6월 현재 3년 동안 4.9% 퍼센트 씩을 매년 복리로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입니다.

하지만 복리이자를 받아야겠다 싶으시면 이자를 몇 번 받을 수 있는 3년, 5년 이러한 상품들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지요. 오늘은 우리 에스더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삼년마이가 상품을 말씀드렸고 혹시라도 오년을 볶으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2025년 6월 마이가(MYGA) 좋은 이자율은 매년 5.2% 복리로 받는 상품도 있습니다. 에스더님께 도움이 되셨을 때 바랍니다.

기사를 바라고 마이 가에 대한 문의와 플랜이 필요하시면 제가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10만불에 3년 4.9% 보장 복리

1년	\$104,900
2년	\$110,040.10
3년	\$115,432.06

이자 받은 돈 \$15,432.06

19

3435 Wilshire Blvd., 14FL A04, Los Angeles, CA 90010
6 Centerpointe Dr., Suite 737, La Palma, CA 90623

Finance & Marketing
WISE CALIFORNIA

626-827-9599

3435 Wilshire Blvd., 14FL A04, Los Angeles, CA 90010
6 Centerpointe Dr., Suite 737, La Palma, CA 90623

TV CHOSUN

TOP7 완전체 LA 총출동!

춘길 손빈아 김용빈 추혁진
천록담 최재명 남승민

TOP7 LA 미스터트롯 3

2025년 8월 24일(일) 2PM, 6:30PM

WILSHIRE EBBELL THEATRE
The Ebell of Los Angeles

월셔이벨극장
743 S. Lucerne Blvd., LA, CA 90005

2회 공연

ChosunDaily LA
미주조선일보 LA

티켓 문의 (213)459-6800 | (213)315-5177
4221 Wilshire Blvd. #224, Los Angeles, CA 90010

미스터트롯 3

Top7과 떠나는 크루즈여행

8월 25일(월) ~ 29일(금) 4박 5일

손빈아 천록담 김용빈 춘길 최재명 남승민 추혁진

SHOW SHOW SHOW

미스터트롯 선상 갈라쇼, 멕시코 전통쇼, 탈렌트쇼

“푸짐한 경품잔치”

CARNIVAL RADIANCE

탈렌트쇼 & 가라오케쇼

멕시코 문화센터
마리아치밴드와 민속공연 관람

선상 스페셜이벤트
(오후)

미스터트롯 3
프리미엄
선상 공연

다양한 경품 추첨이 있습니다. (항공권, 마사지체어, 알拉斯카 크루즈 등)

▶ 요금: 오션뷰 \$1,799
발코니 \$1,999

▶ 포함: 4박 5일 크루즈 비용, 세금일체(포트세, 정부세),
기항지 투어(2일) + 프라이빗쇼 관람 및 행사, 크루즈 보험
*1인당/ 2인1실 기준 *예약시 완납, 갠슬시 패널티 적용

213·386·1818
745 S Oxford Ave. 1F, Los Angeles, CA 90005
www.EliteTourUS.com email: info@elitetourus.com

여행의 명문 -
et ELITE TOUR

엘리트 투어